



# IBK기업은행은 희망배달부입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의 희망을 키워온 평생은행 IBK기업은행이 오늘도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희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여성시대

양희은 · 서경석입니다

2015 October **10**

이달의 편지  
고마운 사람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준 동화구연





이동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모바일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 | 모바일에서 바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 자산설계부터 자출관리까지 도와주는 금융메시지먼트 |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상하필 제2015-1403호(2015.06.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담당점 또는 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금융기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contents 2015년 10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준 동화구연

**10 이달의 편지**  
고마운 사람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에어비타 이길순 대표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연변에서 왔습니다

**82 코너 속 편지**  
테일러 이등병의 병영일기 외

**104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규칙을 자주 위반하는 아이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당일치기 여행

**110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가족의 힘

**112 행복한 책 읽기**  
《가족이라는 병》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10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한  
 등록번호 라-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승미 **월간지(비매출)**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일악)/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준 동화구연

동화구연가 정혜선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오늘 이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겠노라.’  
하느님의 말이 새들에게 전해졌어요.  
새들은 단장을 하며 다들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초대되었어.’  
‘와우, 너무 신난다.’  
‘누가 뽑힐까? 정말 궁금해.’”

이습우화인 ‘허영심 많은 까마귀’를 연습하고 있는 <귀요미 동화구연 동아리>의 연습실은 개성 있는 목소리들로 가득했다. 하느님, 공작과 백조, 참새, 까마귀를 역을 맡은 단원들은 호흡 조절과 목소리 톤을 맞추며 동화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다.

여성시대 가족 정혜선 씨는 공작과 참새의 1인 2역을 하며 낭랑한 목소리로 극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한 혜선 씨가 동화구연가를 꿈꾸게 된 건 순전히 ‘라디오’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라디오를 벗삼아 지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여성시대를 어린 시절부터 꼭 들어온 혜선 씨다.



다리가 불편한 혜선 씨가 바깥에 나가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걸 본 아버지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 후 줄 곳 집안에서만 생활한 혜선 씨에게 라디오와 책은 상상의 나라를 펼쳐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혜선 씨가 소아마비를 앓은 건 세 살 때였다. 어렸ות이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 보호장구를 하며 걸음 연습을 하던 혜선 씨는 보호장구도 무겁고 걷는 것도 힘들어 땀을 뻘뻘 흘리며 울고 있었다.

“엄마, 아퍼. 안 해.”

울부짖는 혜선 씨를 바라보던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찼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어머니는 아프다는 딸이 안쓰러워 억지로 걸음 연습시키는 걸 그만두었다.

오남매의 막내딸이라 집안의 귀염둥이로 자랐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무릎은 언제나 혜선 씨 차지였다. 그 무릎에서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장기를 배우고 화투도 배웠다. 아버지는 아마도 딸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셨던 것 같았다. 아버지의 막내딸 사랑법은 그랬었다.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이웃들이 혜선 씨를 보며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쫄쫄쫄, 얼굴도 예쁜 애가 안됐네.”

그 ‘쫄쫄쫄’ 하는 혀 차는 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미간을 쩡그리며 걱정스럽다는 얼굴로 혀를 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울해지는구나. 안되겠다.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웃는 얼굴로 지냈다. 웃는 얼굴을 하면 자신도 더 명랑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언니, 오빠의 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세상을 향해 나오기 시작했다.

신문의 한 귀퉁이에 난 장애인직업학교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갔다. 그때 혜선 씨 나이 서른세 살. 세상을 향해 나오기까지 삼십년의 세

월이 흐른 것이다. 직업학교의 생활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에 나와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뭉치를 익혀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금속공예를 익힌 혜선 씨는 취직을 해 돈을 벌었다. 또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직업학교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자신처럼 휠체어를 탄 그 사람은 세상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 함께 전철을 타고 남대문을 가고, 신촌을 가고, 상상 속의 세상이 혜선 씨 앞에 펼쳐졌을 때의 감동을 안겨준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남편은 스물세 살 때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장애를 얻게 됐다. 몸에서 호르몬과 갈숨이 생성되지 않아 몸이 점점 뻣뻣해지고 굳어버리는 희귀병에 걸렸다. 장애를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세상은 달랐다. 장애인직업학교에 오며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고 혜선 씨를 만나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신혼의 단꿈을 즐기는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하반신 마비인 남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하늘이 준 선물인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십년 세월이 훌쩍 지나고 귀염둥이 아들은 이제 열 살이다. 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아이가 자신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가 걱정이었는데 아들은 그런 부모 마음을 마치 헤아리기라도 하는 듯 살갑게 군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혜선 씨의 휠체어를 신기해하며 만지면 “야, 그거 우리 엄마 다리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점잖게 타이른다.

아이가 자라고 육아에 전념하다보니 혜선 씨 나이 어느새 마흔아홉이었다. ‘이렇게 나이만 먹어갈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마음속의 소리가 소곤소곤 말을 걸어올 즈음 장애인복지관에서 동화구연가 양성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앞뒤 재지 않고 단박에 신청을 했다.

수업이 있던 첫날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복지관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콩닥거렸다. 12주의 수업이 끝나고 동화구연 시험을 보고 당당히 합격했다. 동화구연 연습을 하면서 어린 시절 꿈을 자주 꾸었다. 동화 속의 세상에 폭 빠져 세상과 떨어져 살았던 세월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도 같았다.

함께 수료한 동료들과 <귀요미 동화구연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가슴 가득 밀려오는 행복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동화구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얻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요. 마치 어린이가 된 듯 순수해지고,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행복감이 막 밀려와요. 제 생활이 더 활기차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만 자격증은 3급인데 이제 2급 자격증도 딸 생각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마해서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책 녹음하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는 혜선 씨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이라면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돌봐주고 그때까지 사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각종 합병증으로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 건강에도 더 신경 쓰며, 즐겁게 신나게 동화구연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우 장유진 씨의 목소리와 흡사한 그 어여쁜 목소리로 깔깔 웃는 모습이 참 싱그럽다.







여성시대 우체통에는 물들어 가는 단풍잎만큼 다양한 색깔의 편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던 여름의 그림자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가을을 담은 편지들이 속속 우체통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여성시대에 오는 편지들은 다른 계절에 도착하는 편지보다 울림이 깊습니다.

밖으로 밖으로만 뻗어가던 나뭇잎과 줄기들도 안쪽으로 향하기 시작해 씨앗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도 내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이달의 편지 안에는 씨앗처럼 단단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몸이 불편한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셋째 아이를 가진 딸을 바라보는 안쓰러운 부모의 마음이, 시력에 이어 청력을 잃어가는 청년의 마음이, 노쇠해 가는 친정부모님을 바라보는 딸의 애잔한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성시대 사연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을 종종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런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내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저런 마음이겠구나.’ 마음의 넓이가 어느새 넓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게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시대 사연을 들으며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며 ‘공감’일 테니까요!

이달의

편지

- 12 고마운 사람
- 16 경아와 경자
- 20 서글픈 부창부수
- 24 셋째 아이를 갖은 딸에게
- 27 잃어버린 지갑의 행방
- 32 시력에 이어 청력까지
- 35 택시운전 33년
- 39 동심이 풀어버린 층간소음 문제
- 42 경주빵 덕에 가정을 지키다
- 46 새벽 3시, 골프장 잔디에 물을 주며
- 50 청포도 사건
- 54 도서관에서 생긴 일
- 57 40년 된 진열장과의 이별
- 61 친정 땅을 등기이전하며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Letter 1

고마운  
사람

구안순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결** 혼한 지 3년 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후 홀로 키워온 아들. 아들은 어릴 적 크게 앓았던 열병 때문에 소아마비가 왔다. 난 아들이 커갈수록 점점 죄책감이 쌓여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다.

절룩거리는 발을 떼며 걸어와 “엄마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어? 난 괜찮아 엄마” 하며, 안쓰러움과 죄책감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던 아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아들이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IT 회사에 당당히 한번에 합격했다.

그날 아들은 얼마나 기뻐던지 내 앞에서 환호성과 함께 볼에 뽀뽀 세례까지 퍼부어줬다. 아들이 그렇게도 기뻐한 이유는 면접관이 아들을 장애인 채용이 아닌, 일반 채용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실력을





인정해서 뽑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 또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걱정을 넘어서서 늘 이렇게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가끔은 이런 아들이 고맙고 대견했지만 어느 편 ‘서운하다’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난 늘 다시 깨닫는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아들을 위한 내 품의 울타리는 너무 컸다고.’

아들은 인복이 있었는지 직장 상사,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좋았고 가끔 입사 동기였던 친구들을 데려와 자랑스럽게 날 그들에게 소개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들의 말에 ‘예전처럼 외식이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괜찮다’고 했더니 아들은 대뜸 “엄마, 엄마 다음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오늘 괜찮을까요?” 말했다. 늘 배려심이 많아, 내 의견과 마음까지 헤아려주던 아들이었지만 그날은 뜻밖의 말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몇 초 동안이지만 참 많은 생각에 잠겼다. ‘벌써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삶에 지쳐 아등바등 돈벌이만 생각했던 난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아들은 30대가 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 아들 결혼...’

오늘 아들이 소개할 여자는 누굴까? 어떤 모습일까? 정말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난 그냥 그렇게

내 아들을 사랑해주는 그녀가 고마웠다.

난 솔직히 아들에게 여자가 생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들의 미래를 밝게 생각하고 그런 미래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난 가난을 탓하며, 장애를 가진 아들의 현실만 생각했고, 지금까지 내 기준에만 맞추며 살았던 거 같아 아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날 저녁 나의 미래 며느리를 만나게 됐다.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그녀는 내 맘에 쏙 들었다. 홀로 키운 아들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게 많이 아깝고 허전했지만, 아들의 여자 또한 얼마나 귀하게 컸겠는가! 장애 있는 아들을 사랑해주는 것만으로 난 그녀가 이유 없이 고맙고 또 감사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여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 후 찬거리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고, 늘 이 집의 딸인 양 솜씨 좋게 밑반찬이며 국거리를 만들어서 함께 먹곤 하였다. 그렇게 아들의 여자는 내가 미안하고 고맙다는데도 내게 감사하다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번 가을에, 아들의 여자는 나의 귀하고 귀한 사랑스런 며느리가 된다. 꿈같은 현실이 내게도 오고가 싶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폐물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큐빅이 박힌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너무나 행복해 했다.

미안하고 고마운 새아기. 오늘도 킁킁대며 큰 수박을 들고 와 시원한 화채를 맛깔스럽게 만들어냈다. 아들이 올 때까지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보글보글 김치찌개도 끓이고, 함께 아들을 기다려야겠다.



10년 전 쯤 나온 드라마가 문득 생각나네요.  
“(홀쩍이며) 친구들이 제 이름이 촌스럽다고… 흑흑… 막 놀려요.”

“아휴, 이름이 뭐 어때서 그래.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남들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즐거워했지만 전 그 드라마 주인공이 자랑 똑같은 처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나 미팅, 심지어 새로 이사 간 동네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이경아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 경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이런 옛날 영화 대사를 읊조리면서 제 이름을 놀리죠. 또, 노래방에 가면 저한테 “야야,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거부터 한 곡 뽑아봐” 그러네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만, 남자 운은 지지리도 없었던 그 옛날 ‘별들의 고향’이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경아’ 그 인물과 이름이 같아서인지 제가 18살 고2 때, 큰 맘 먹고 좋아하는 오빠한테 가요테이프랑 편지를 선물했을 때도 “나 좋아하는 애 있어. 이런 거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을래”라는 말을 들었고, 또 21살 한창 예쁜 나이에는 남자 친구가 생겼지만 두 달도 못 가서 찢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사람을 알게 되면서 점점 제 이름에 대한 생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직장 후배인 ‘경.자.’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 “자야~” 하고 부르면 네다섯 명은 “예~” 하고 대답할 정도로 정자, 순자, 말자, 영자, 옥자, 춘자, 성자… 자자로 끝나는 정말이지 개성도 없고 획일적인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어린 82년생이고 흑백TV도 사라지고 통행금지도 해제된 시절에 태어났는데도 이름이 ‘경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태어난 우리 엄마랑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졌으니 참 속상하고 싫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는 감히, 내가 이름 때문에 심각하게 개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얘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앞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좀 잊혀진다고 싶으면, TV에서 한 번씩 그 시절 화제가 됐던 영화나 소설이 등장하면서 꼭 내 이름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같이 TV 보던 우리 아들도 나한테 ‘오~ 경아~’ 이런다! 내, 참!”

그러자 그 친구는 저에게 이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난 언니 이름 좋은데요. 일단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도 쉽고. 예를 들면, 전산 담당하는 이은혜 씨 보세요. 자기 이름 알려줄 때마다 ‘이.은.혜.요! 아니~ 은혜 ‘혜’가 아니고요 바다 ‘해!’ ‘여이’가 아니라 ‘아이’ 쓰는 ‘혜’요! 아휴~ 이름 한 번 알려주다가 날 새겠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 거창하게 한마디 늘어

놓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얻어진 이름이거나 아들 갖고 싶은 욕심에 한 집안의 소망으로 생긴 이름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제 이름은 우리 역사와 사회적 변화상의 증거다,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죠!”

얼핏 들으면, 마치 본인이 ‘한’ 많은 우리 여인네들의 삶을 대변하는 듯해서 앓은 귀를 팔랑이며 고개를 끄덕끄덕할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친구 이름이 좀 촌스러운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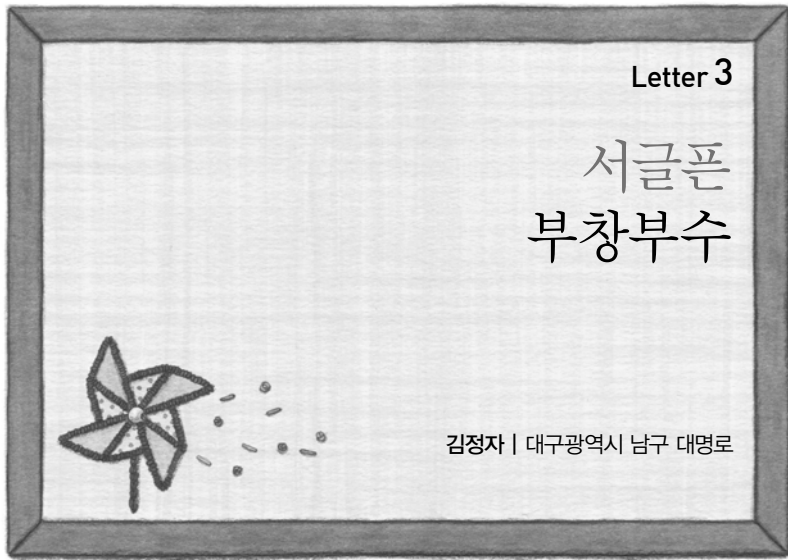
그런데 이 친구가 이름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1남 4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나 그나마 자신의 이름 경자, 아들 ‘차’자를 쓴 그 이름 덕분에 남동생이 나왔다고, 그래서 집안의 미움을 덜 받고 자란 셈이라고요. 자신의 큰언니부터 셋째 언니까지는 이름이 경미, 경혜, 경오 이런 무난한 이름인데 자신은 ‘경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언니들에 비하면 고맙고, 서럽지 않은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거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이름’이라는 것이 평생 나와 함께 붙어 다녀야 할 또 하나의 ‘내가 아닌가 싶네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도 아끼지도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볼까 해요. 누가 놀리면, 뭐 놀리라고 하죠. 내 이름 때문에 우는 것보다 내 이름 덕분에 사람들이 웃는 게 더 복 받을 일 아닐까요?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 중요한 건 이름이 예쁘다고 하루하루가 다 값지고 알찬 것은 아니고요.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보다 더 지쳐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운 내 그림자를 질질 끌고 간신히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불쾌한 얼굴이었지만 얼굴이 경직된 게 분명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몇 살 되지도 않는 사람이 바람바람 대들잖아. 나 참, 더러워서, 회사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무슨 일인데? 회사까지 그만두려고?”

환갑이 넘 모레인 남편이 늘 직장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회사까지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둘이 벌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인데, 뭘 믿고 저러나 싶어 내심

걱정도 되었다. 설마 날 믿고 회사 그만두려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소주잔을 꺼내들고 맞은 편 의자에 앉았다.

이불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은 입출고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단이 한 트럭 들어올 때면 그걸 내려 정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 했다. 무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옮기다보면 옷은 금방 흠뻑 젖어버리고 여름 내내 땀띠에 시달리느라 남편의 온몸은 빨갛게 변하곤 했다.

“내가 일하는 1층과 다른 부서가 일하는 2층이 출입구를 함께 쓴 단 말이야. 그런데 2층 작업자가 쓸 원단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몇 번을 올려줬는데 그 일이 슬그머니 우리 부서 뒤편으로 넘어와 버렸어. 오늘도 빨리 짐 좀 치우라고 했더니, 우리 부서 사람들이 옮겨주게 된 일이라고 바람바람 우기잖아. 사장님 지시가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계속 무거운 원단을 올려주다 보니 남편 부서 직원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급기야 부서장끼리 목소리를 높인 모양이었다. 나이가 세 살이나 아래인 동급 부서가 사장님 지시라며 막무가내로 일을 떠넘기려 하는 게 알미워 거칠게 싸웠고,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만두겠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양제 짓만 골라한다며,

소주잔이 빠르게 비는 만큼, 남편의 얼굴도 붉게 변해간다. 그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디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지… 회사 일이란 게 자꾸 받아주다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앞에 쌓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깟 일로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나 역시 수백 번은 때려치웠을 것이다.

어쩌면 남편은 지금, 일이 힘에 부쳐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나 보다. 몇 달 전에는 원단을 옮기다가 무거운 짐이 등 쪽으로 떨어져 갈

비뺨이 여러 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 일 이후 원단이 들어오는 날이면 일이 힘에 부친다고 전날 저녁부터 걱정을 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서 섭섭해 하기도 했다. 사고를 당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갈비뼈 통증은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고, 사고 이후 육체적인 한계를 느껴서인지 성마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성격이 화를 불러올 것 같아 불안했다. 부지런한 성격 탓에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두고 볼 수 없어 자꾸만 나서서 일을 하다 보니 갈비뼈가 붙는 시간도 늦춰졌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도 어긋나게 붙어가는 중이라 했다.

자신의 나이 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의 자리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남편의 사소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는 내가 회사에서 늘 겪는 일이기에 한 번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일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위로 차원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 역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부서가 단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앞 부서에서 단품으로 채운 운반대차를 내가 모두 꺼내 쓰고 나면 빈 대차를 밖에 내놓는다. 그러면 그쪽 사람 누군가가 그 대차를 끌고 가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오는 단품을 담는 방식이다. 주어진 하루 생산량이 숨 한 번 제대로 돌릴 틈 없이 일해야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어서 시간을 초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앞 공정에서 불량품이 섞여 오면 생산량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잠시도 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모두 너무 바쁘게 많은 일을 하는데, 대부분 가난한 중년층이다. 나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며 살아간다.

며칠 전 복도에 빈 대차를 밀어내고 빠르게 돌아서는데 누군가 “어이~!” 하여 돌아보니 인사 정도는 하며 지내는 쉼 살쪼 되는 앞 부

서 반장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다섯 살 정도 아래인 남자였다. 기분이 묘하게 나빴다. 그런 호칭은 처음이었다. 300명 가까운 사원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흔해빠진 이모도 있고 여사님도 있는데 ‘어이’라니. 반장도 나를 얼떨결에 불러 놓고 약간 당황스러워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이야기만 했다.

“빈 대차 내 놓을 땐 앞가리개 내리고 앞 부서까지 밀어 놓으세요.”

자기 부서의 편리를 위해 무거운 대차를 밀어 달라는 말이었다. 내가 시간에 쫓기든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문책을 당하든 알 바 아니라는 말이었다. 슬쩍 일 하나를 떠넘기고 반장은 바쁜 듯 가버렸다. 마음을 배인 듯 통증이 왔지만 살아남아야 하니까 혼자 삭히고 견뎌내야 한다. 시간에 기대서.

“며칠 지나면 별 일 아닌 게 돼. 작은 일에도 자꾸 서운해지는 게 나이 탓인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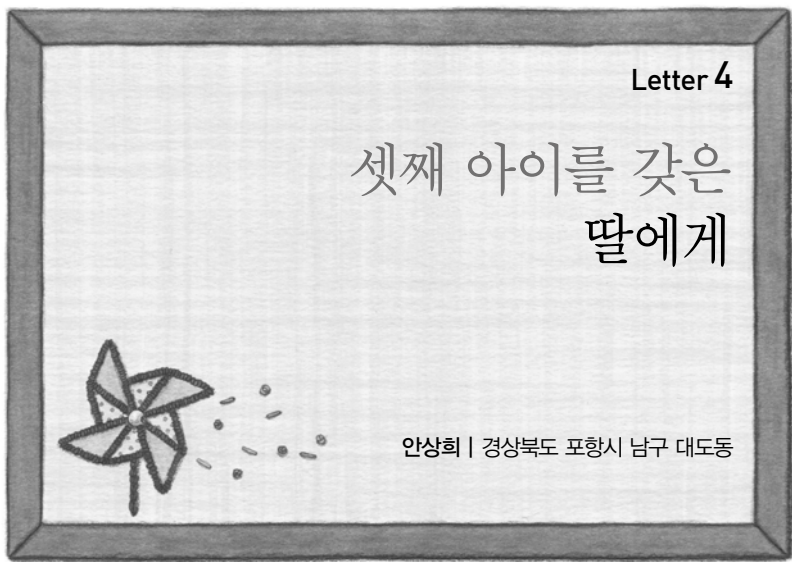
나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소주 한 병을 더 꺼냈다. 일어난 김에 계란 프라이도 만들었다.

“당신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누가 더 일하고 싶겠어? 자기 맡은 일도 해내기 벅찬데...”

내 얘기가 남편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아니면 더 슬프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회사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아 다행이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가끔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 손 떼는 거지 뭐.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쨌든 견뎌봅시다.”

우리는 서글픈 현실과 불안한 노후를 잠시 잊혀두고, 깔끔하게 소주 한 병을 더 비웠다. 술맛이 씹혔다.



며칠 전 사위와 딸이 6살, 4살 먹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 다른 날과 같이 사위와 손주를 반갑게 맞았다. 점심을 먹고 딸이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한다. 사위도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리를 잡고 앉으며 둘이 내 눈치를 본다.

그러더니 사위가 “장모님, 축하해주세요. 장모님 셋째 손주가 생겼습니다” 하는 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딸은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제왕절개를 하면 둘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딸을 보고 “애, 너 아이 더 못 낳잖니?” 물으니 “엄마,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셋까지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대” 대답한다.

나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의 불찰이



다. 당연히 아이를 둘만 낳는 줄 알고 피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하여 본인들이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또 갖다니….

나는 순간 딸에게 화가 났다. 언성을 높이며 “너희들 셋째를 계획한거니,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거니?” 물으니 딸을 낳고 싶어서 계획을 했다고 한다. 닷까지 생각했는데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아야 해서 셋만 낳을 거라며 해맑게 웃는 딸이 순간 너무 밍고 보기가 싫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들 내 방에서 나가” 하고 방에 누워 ‘에고, 저걸 어찌나? 지금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또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번엔 엄마 고생 안 시킬게. 내년 1월이 예정일인데 산후조리해주는 분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한다.

6살 큰 손주는 8월 19일에 태어났고, 4살 작은 손주는 7월 20일에 태어났다. 한여름 더울 때 태어나 산모도 아이도 더위에 힘들었



지만 산후조리해주는 나 또한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몸조리는 금방 지나가는 일이라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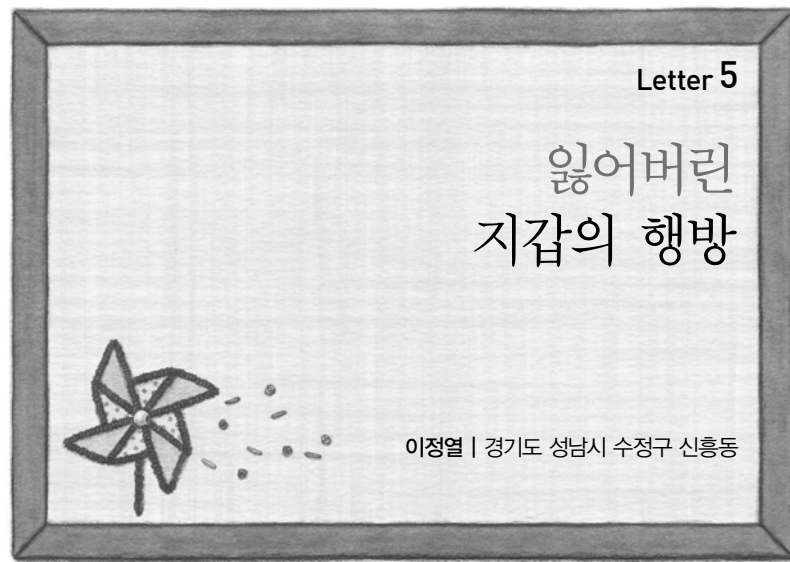
사실 나는 큰딸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뒤 집기를 하고 일어서고, 걷고, 말을 하고, 뛰어다닐 때까지 무척이나 마음을 졸였었다. 왜냐하면 32년 전, 둘째 딸을 출산할 때의 기억 때문이다. 난산으로 태어난 현재 서른두 살인 둘째는 지금까지도 아픈 딸로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뇌 손상을 입어 아이는 많이도 아팠다.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키우는 동안 참 힘들었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의 고통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큰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민감하게 지켜보았다. 다행히 손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보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또 임신이러니!

내 주위의 친구들은 딸이 시집을 안 가서 걱정이고, 또 시집 보낸 딸이 임신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딸이 아이 셋을 낳는다는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속을 태우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엄마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데 나는 아직 큰딸에게 셋째 임신을 축하 해주지 못하고 있다.

〈엄마, 이번엔 나 같은 예쁜 딸 낳을게. 아들 손주 둘에다가 예쁜 손녀가 있으면 좋잖아. 이번엔 입덧이 다르고, 먹는 것도 신 것만 먹고 싶어. 내 느낌에 딸인 것 같아. 그리고 정 서방도 입덧을 같이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이들 잘 키우고 잘살게〉라는 문자가 딸에게서 왔다.

그래 내 딸 지영아! 셋째 임신 축하한다. 이번엔 너처럼 예쁜 손녀를 보게 해주면 참 좋겠다. 내 딸, 순산해라.



“아 버지! 저희 왔습니다.”  
“어여 와!”

우리를 반기는 장인어른의 표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밝다. “아버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묻는 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이렇다.

두 달 전 장인어른 생신 때쯤, 해마다 내려가서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올해는 회사 일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장인어른이 올라오실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다음날 아내로부터 “이번에는 아버지가 올라오신다네”라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생신날이 되어 장인어른이 올라오셨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표정이 밝지 않고 한쪽 볼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평소 튼튼하다 자부



하시던 치아가 하필 그때 탈이 난 거다. 진통제도 효과가 없고, 주말이라 진료하는 치과도 없어 생신상은커녕 식사도 물에 말아 몇 숟 뜨셨다.

겨우 하룻밤 주무시고 우리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평소 다니던 시골 치과에 가야 한다며 새벽 첫차로 내려가시는 장인어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터미널에서 차표와 약간의 용돈을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배웅을 해드리고 처남에게 도착시간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런데 오전 11시에 도착해야할 장인어른이 오후 7시가 넘도록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다는 처남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저기 연락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데 밤 열시가 넘어 아버님이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늦게 집에 돌아오신 아버님께 처남이 화가 나서 “어디서 뭐 하시다 이제 오셨느냐”고 물으니, 버스에서 내려서 치과에 들러 치료하고 시장에 들러 생선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없더라.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당신이 왔던 길을 몇 번을 되짚어 돌아봤는데 역시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아침에 사위인 내가 넣어준 용돈이 생각나서 그 돈으로 막차 타고 들어오셨단다.

지갑 안에는 자그마치 50만 원이라는 거금이 현금으로 들어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안전하게 돌아오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잊기로 했지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다니셨는지는 나나 아내나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분명 장인어른도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 마음고생을 하실 게 뻔해 더 이상 여쭙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포기하고 잊고 있던 그 지갑을 두 달 만에 찾으셨단다. 며칠 전 한 남자가 전화로 지갑 분실 사실을 묻더라. 실은 자기 아들

이 지갑을 주었는데 안에 현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 들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갑 안을 보다 장인어른의 장애인카드를 보고는 많은 갈등이 생겨서 지금까지 방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인어른은 6.25전쟁 때 당한 부상으로 아직도 몸 안에 제거하지 못한 파편이 수십 개나 있다. 그리고 전화를 건 분이 말씀하시길 사실은 지갑을 주운 자기 아들도 장애인이라며 아들이 현금을 보자 욕심은 생겼지만 본인도 장애인으로 그 지갑의 돈을 갖는 데 많은 갈등을 하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인 본인에게 털어냈다고 했다. 그러며 늦었지만 이해해달라는 사과와 함께 자기가 나갈 처지가 안 되니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오십사, 부탁을 하더라.

다음날 약속장소에 갔더니 작은 구멍가게더라. 아버님은 전화를 건 분과 한참을 얘기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죄송해하는 아이의 손에 사례비를 쥐어주셨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애 들러우리 내려오면 해주려고 생선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다며 싱글벙글 좋아하셨다.

요양원에 계시는 장모님 병문안을 가는 차안에서 아내가 장인어른께 물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시면 혹시 차비 안 드릴까봐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그거, 나가 요번에 올라가서 이 서방 생일파티 한번 해주려고 했어.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간 거고. 근디, 이놈의 이가 속을 썩이는데. 내가 이 서방 뺨을 모르는 건 아닌디, 얼굴을 웅덩이그리고 있을라니 서로 월매나 불편해. 그러서 급하게 내려온겨. 어쨌거나 이 서방 생일파티는 인제는 원제 해줄라나 모르겠구만.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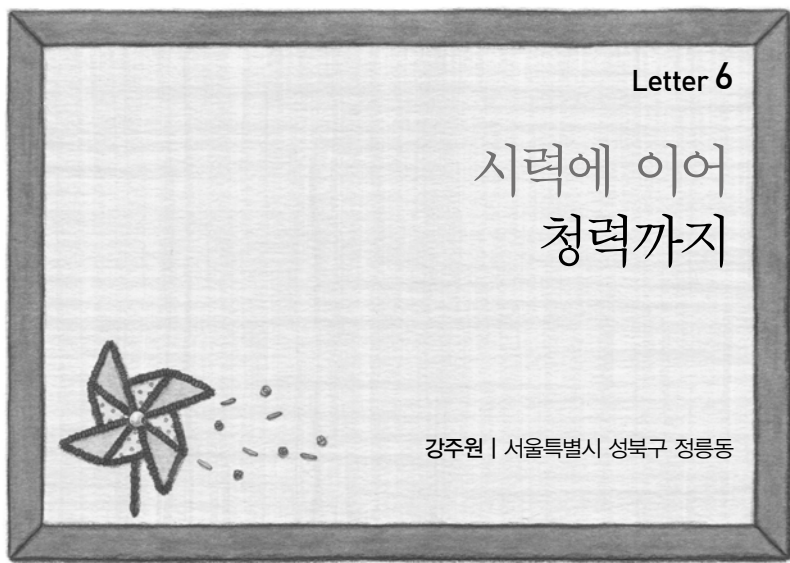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다. “아이고, 아버님!” 하고는 입술과 어금니에 힘이 들어갔다. 사실 나의 생일은 장인어른보다 하루 늦다. 결혼 후, 항상 장인어른 생신 때 같이 슬쩍 문어가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나보다.

장인어른은 생전 싫다 좋다 표현이 없으신 분으로 식구들끼리 모여 술 한잔 할 때도 내가 “아버님, 막내사위 술 한잔 받으세요” 하면 됐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

그런데 막내 사위 생일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구십이 다된 노구를 이끌고 짠 바닷바람 맞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웃집 그물 손질을 하고 생선 손질을 도와주고 받은 품삯을 차곡차곡 모아서 올라오셨다는 그 말씀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버님! 저 생일파티 결혼하고 해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작고 부족한 놈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장만했으니—물론 현관 빼고 다 은행 저지만요—올라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가시고 그러세요. 아버님! 저 청이 하나 있는데, 저랑 술 한잔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 전화 못 드리면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자네가 바빠서 전화를 못하니 내가 하네. 허허!’ 하고 웃으시는 거 보면 술을 못 드시는 건 아닌데, 아내 말로는 혹시 실수할까봐 그러신다는 데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술잔 기울이는 것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청해도 안 들어주시니 그건 조금 서운합니다. 다음에는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아버님 무용담 좀 들려주세요. 아버님, 막내사위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원** 쪽 청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검사 기록을 본 원장님의 말씀이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다. 청각장애인이 된 지 4년이 넘은 터라 이미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었을 뿐, 막상 검사 결과지를 앞에 놓은 의사의 입을 통해 전해 들으니 내가 앉아 있던 의자마저 깊은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선천성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후천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된 나는 현재의 청력은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청각장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사실 누군가의 말을 통해 듣지 않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나이를 더해갈수록 늙

어가니 말이다. 그런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소중한 나날들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잔존 청력이 있어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많은 경험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맛있는 것을 즐기고,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원래 노래 부르기를 즐겨했으나 이젠 노래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그것을 대신해 맛 탐방을 하고, 역마살이 켜다 싶게 어딘가를 쏘다니는 것과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동안 참 열심히 먹고 마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나 때로는 기분 상하는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일조차도 현재의 나에게겐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사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내가 이런 상황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다. 어찌면 잠시라도 잊고 싶다는 간절함이 나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었기에 잊는 것이 가능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오늘처럼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며칠간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 청력이 나빠지면 나빠진 청력에 맞게 보청기를 조절해야하므로 청력검사 결과지를 받아두고 병원 문을 나섰다.

여러 상념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온로트가 혼자여야 하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선 누군가와와 즐거운 수다시간이 절실했다.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로 여기저기 대화를 시도해 봤다. 그런데 바로 답이 오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답이 오더라도 저녁 일정이거나 선약이 이미 잡

힌 상태였다. 몇 명에겐가 연락을 더 해본 후 만남을 포기하고 버스에 서 내려 단골 김밥 포장마차에서 대충 저녁을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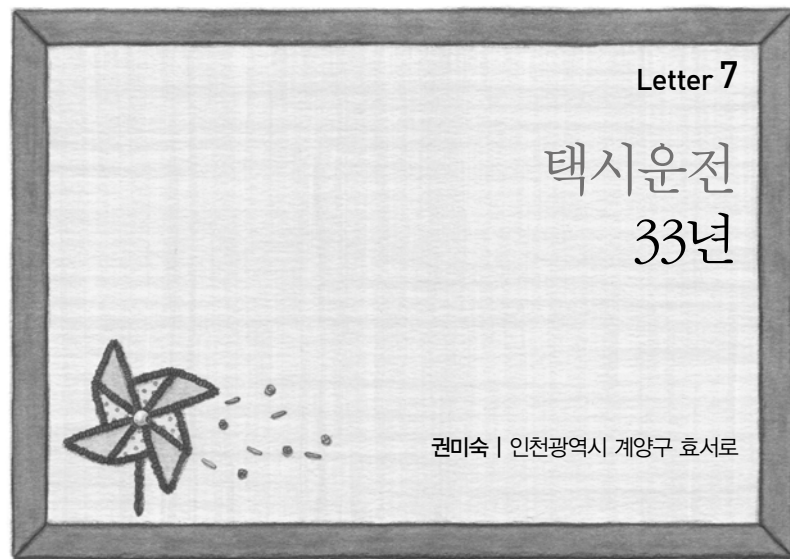
저녁을 해결했으니 이제 혼자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 답답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요량으로 단골 카페로 향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그동안 읽어오던 접자로 된 일본어 원서 소설을 읽기 위해 접자 노트북적인 접자정보단말기를 켜다. 구직활동, 사람들과의 관계, 청력 변화에 따른 삶의 대처 자세, 그 무엇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책의 스토리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팔이 아픈 것도 참고 열심히 읽어갔다. 너무 팔이 아파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때마침 카페 사장님이 앞에 와 앉는 기척이 났다. 그냥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사장님은 카페 일을 보셨고 난 또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한계를 느낄 때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멍하니 버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어디든 떠나자.'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도 없었다. 지금 나는 구직활동 중이므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넣어볼 작정을 해봤다. 일정을 잘 짜서 며칠간 돌아다니고 오면 또 내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테니까.

먼 훗날 후회와 미련이라는 녀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을 멋지게 즐겨볼 생각이다. 지금의 이 순간들이 내가 잔존 청력을 다 잃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훗날엔 하루하루 버텨갈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어 줄 테니 말이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택시 운전이지요. 1980년 봄, 이곳 인천으로 이사 와서 택시 운전을 하려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였기에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가을에 아는 분의 소개로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영업택시 사납금 입금하는 일이 정말 힘에 부쳤습니다. 길도 모르고 운전도 초보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7개월 정도 하다 조금 쉬면서 봉제학원에 한 달 다녔습니다. 하지만 봉제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에 도전을 했지요. 그리고 1989년 개인택시를 받아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일 때는 작은 접촉사고도 있었으나 1995년 무사고 10년 교통

성실장, 2000년 무사고 15년 교통발전장, 2005년 무사고 20년 교통질서장, 2010년 무사고 25년 교통삼색장, 2015년 무사고 30년 교통안전장 그리고 경찰청장님이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만 주는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았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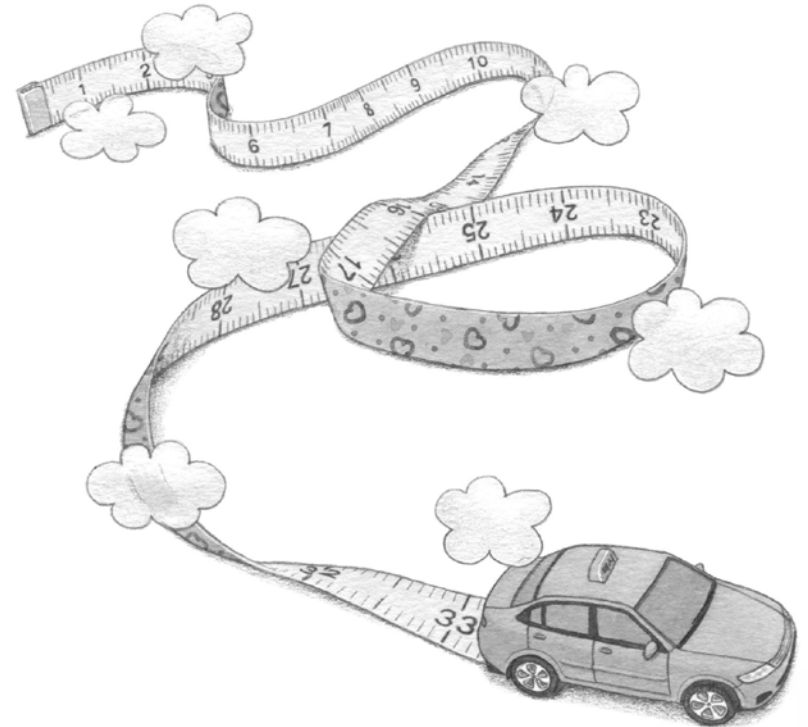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시다. 손님이 택시에 타면서 출발하기도 전에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빨리 좀 가달라고 하시면 신경이 많이 쓰입시다. 덩달아 제 마음도 바빠집시다. 사는 게 바빠서 그러는 건 이해되지만 안전 운전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시다.

어떤 손님은 도로에 차가 많아서 빨리 못 가는데 요금에 많이 나왔다고 짜증을 내습시다. 한번은 막내딸 정도의 아가씨가 욕을 하며 미터기 요금보다 적은 돈을 던지더군요. 내리면서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짜증을 내는데 참 속상했습시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고 손님이 가자고 한 목적지가 차가 많은 백화점과 터미널 부근이었어요. 그럴 때는 그저 제 마음을 비웁시다. 딸 같은 아가씨와 다투면 뭐하나요.

요금을 안 내고 내리는 사람들도 많습시다. 그런 손님은 두 부류입니다. 나이 든 아저씨들은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놓고 10~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시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출발하지요. 요즘 신세대 손님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냅다 도망을 칩시다. 저요, 따라가지 않습시다. 아니, 못 쫓아잡니다. 그리고 긴 한숨으로 혼자 마음을 달랠니다.

술을 많이 드신 손님이 타면 택시요금 걱정보다 혹시 차 안에다 실례를 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 주고 잘 내리는 손님한테는 불안해했던 제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끔 술 드신 손님이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차에서 내리지 않을 때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언젠가는 어느 골목길에서 손님이



아닌 길 가던 남자가 제 차를 가로막고 차 보닛을 주먹으로 쳐서 차가 찌그러졌습시다. 범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주변에 보고 있던 분들이 보기만 하고 도와주지를 않았습시다. 112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은 짹째 도망을 치는 바람에 잡지를 못했습시다. 차는 망가지고, 범인은 도망가고, 몸도 다치고 정말 속이 상했습시다.

그후 가급적이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시다. 나이를 먹다보니 몸도 약해져 일하는 시간이 저절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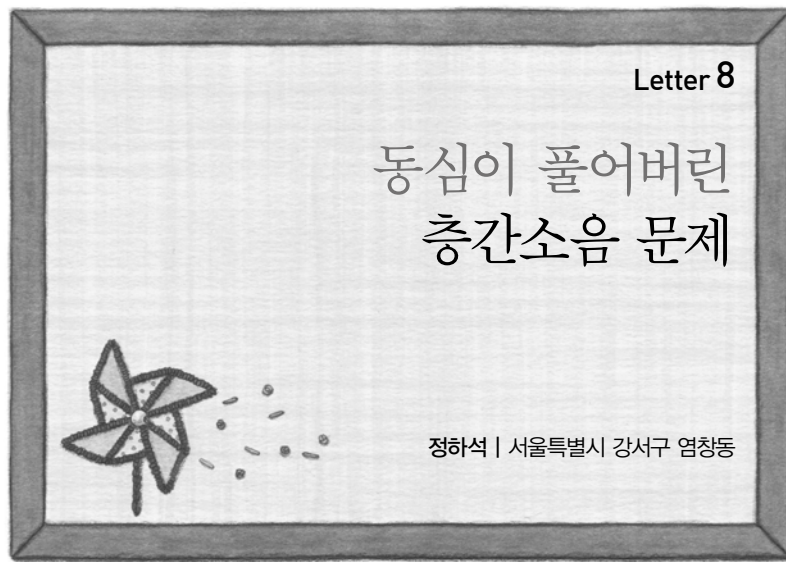
하지만 고마운 손님도 많아요. 군복을 입고 첫 휴가 나오는 거라면 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누나 집에 가는 건데 이렇게 어머니들이 힘든 일 하시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주던 청년을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손님을 내려드릴 때 경찰차가 지나가다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찰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초보였을 때 펑크가 나서 타이어 교체를 하고 있을 때, 손에 익지 않은 일이고, 타이어도 너무 무거워 한 30분 정도를 킁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타이어를 부착해주고 가시는데 너무 고마웠는데도 음료수 한잔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연신 고맙다며 인사만 드리던 수줍은 아가씨였답니다.

저는 제 차를 이용하시는 손님들께 내릴 때 인사도 하지만 내린 다음에도 마음속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기도합니다. 밀리는 도로에서 양보해주는 뒤 차 기사님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손님이나 그 기사님이 들으실 수는 없지만요. 제가 다니는 작은 절이 있는데 스님이 그러셨어요. '나만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라'고요.

운전자 여러분! 조금 일찍 출발하고 여유 있는 운전으로 사고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날의 행복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양보 운전도 많이 하시고요. 택시 운전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큰 욕심 없이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에 늘 감사하고 사는 50대 끝자락에 있는 아줌마의 뉘두리였습니다.

끝으로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퇴** 근해서 집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제가 뛰어오는 걸 보고 어떤 남자분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10층을 누르니까, 그분이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아, 10층 사시는 분이군요? 저… 죄송했습니다” 하시더군요. 저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말꼬리를 흐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층 아래인 9층에서 내리면서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작은 따님 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9층에 내려서 다시 목례를 하고 들어가시더군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일을 얘기 하니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11살, 9살 난 예쁜 두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애들이 7살, 5살 때 중국 상해법원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 모두 4년 정도 중국에서 살



다가 작년 말 귀국했어요. 귀국 후엔 회사에 적응하느라 퇴근도 늦고 그러다 보니 자고 있는 애들 얼굴만 볼 때가 많아졌죠.

상해에 살 때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처럼 층간소음에 민감하지 않아서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선 ‘애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해했죠.

아내 말을 들어보니, 애들이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서처럼 집에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애가 장난기가 많고 활동적이어서 언니랑 장난도 많이 치고, 뛰고 쿵쾅거리면서 아래층인 9층에 적지 않게 층간소음을 줬나 봅니다. 하루는 소음이 좀 심했던지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9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계속 그러면 직접 따지러 올라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아내가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애길 두 딸이 들었나 봅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뛰면 안 돼” 한 번 주의를 주고, 이후론 잊고 있었는데 작은 딸이 그게 영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날 저녁, 방에서 혼자 끙끙대며 무슨 그림엽서를 그리고 늦게 자더니 다음날 아래층 때문에 그 엽서를 붙여놓고 학교를 갔답니다.

〈9층 아줌마, 아저씨께. 제가 중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 아파트에서 뛰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저 이제 안 떨 테니 화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10층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3반 53번 정유민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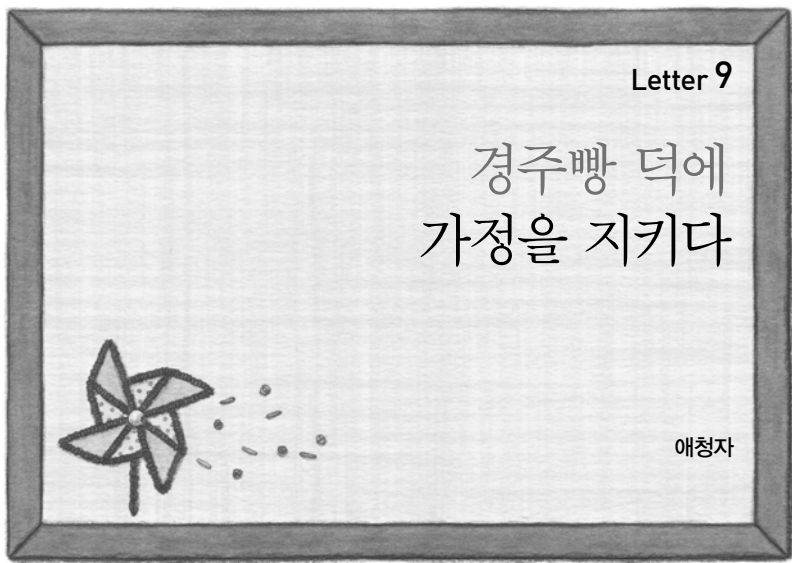
그 일로 9층에 사시는 분들이 딸에게 많이 미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지난번엔 저랑 애들이랑 같이 주말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상추며 고추를 아래층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 손에 들려서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9층 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 웃습니다.

요즘 삶이 많이 각박하지요? 층간소음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칠 때도 있고, 그 화를 참지 못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뉴스를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9층에 사는 우리 이웃도, 우리 작은 아이의 순수한 동심 덕분에 많은 걸 배웠네요. 세상 사는 법을 어린 딸한테 배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쿨쿨 자는 두 딸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 왔습니다.

“큰딸 정유비, 작은 딸 정유민,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앞으로도 아빠한테 많이 가르쳐 주렴!”



저는 43살 남성 애청자입니다. 37살 아내와 7살 아들 이렇게 세 식구의 가장이지요. 결혼 초, 힘들게 지냈던 시간이 생각나 사연을 올려봅니다.

8년 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죠.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고,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더 나이 먹기 전에 우선 결혼부터 하고 보자'는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전에 직장을 같이 다니던 사이였는데 그때 절 좋게 봐줘서 아내도 결혼을 허락해주었지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아내를 반강제로 설득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아파트 전세금과 대출 받은 돈을 합쳐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잘 되나 싶더니, 일이 몇 번 꼬이더군요. 상황이 좋아지질 않자 나중엔 아내 몰래 대출도 더 받게 되고, 아내 명의로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빚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점점 목을 죄어왔어요.

그 무렵 예쁜 아들이 태어났고, 보다 못한 양가 부모님이 급한 불을 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사업 같은 거 그만하고 취직을 하라'고 하셨죠.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에 이력서를 쓰고 회사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락 오는 곳이 많지 않았고 어쩌다 들어간 회사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면허를 따면 그래도 먹고 살 순 있다는 말을 듣고 면허를 따서 관광버스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워낙 없다보니 남들처럼 일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최소 경력이 2~3년 정도는 돼야 돈이 좀 되는 일을 나가거나 큰 회사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선배들과 친해져야 일도 많이 따라갈 수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관광버스 일이란 게 워낙 불규칙해서 성수기 때는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많이 바빠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낮부터 시간이 남을 때도 있었죠. 전 시간이 남으면 술을 마시거나, 당구장, PC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아이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이 일찍 끝나서 회사 형님들과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내에게 일찍 들어가기로 약속했던 날인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많이 늦어졌습니다. '언제 오냐'고 전화하는 아내에게 "술 마시는 것도 일이니까, 자꾸 전화 좀 하지 마"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 가서도 또 싸움을 하게 됐는데, 아내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제 머리를 때리면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하며, 그동안 쌓인 걸 토해내더군요. “어디서 남편을 때려! 니가 지금 미쳤어?” 저는 이성을 잃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우는 아내를 밀치고, 넘어진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뛰쳐나갔죠. 그때가 아들이 3살 되던 때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깨진 유리조각들이 널브러져 있고, 안방 문엔 구멍이 뚫려 있고,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뒤로하고 일을 나갔는데 머리가 멍한 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었지요. 차고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씻는 게 좀 불편해도 그냥 차고지에서 먹고 자기로 했죠.

그렇게 집을 나와 차고지에서 생활한 지 두 달쯤 됐을 때 친목모임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경주로 가게 됐습니다. 보문단지 쪽 식당에서 승객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과 함께 점심밥을 먹게 되었는데 음식이 어찌나 맛있던지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소화도 시킬 겸 식당 주변을 좀 구경했죠. 그러곤 버스에 올라가 시동을 걸고 대기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던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흰색 쇼핑백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애기 있으시죠? 애기랑 같이 드세요” 하더군요. 모임의 총무나 인솔자가 아닌, 그냥 젊은 아주머니여서 좀 의아했지만,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념품이나 음식 같은 걸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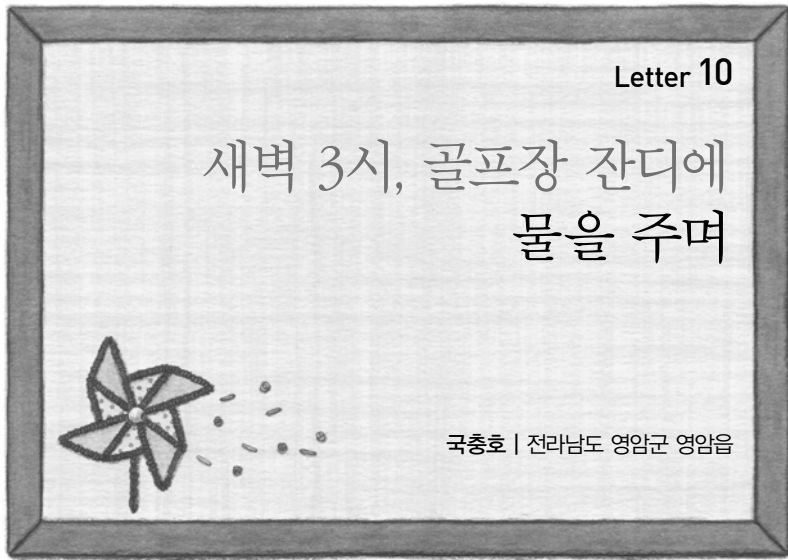
그날 저는 몇 군데를 더 들른 후, 장거리 여행이어서 늦은 밤 차고

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청소를 끝내고, 여느 때처럼 컨테이너에서 형님들과 술 한잔하고 자기로 했는데 안주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손님들이 남은 술과 음식을 버스에 놓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주거리를 찾은 겸 버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낮에 손님이 주고 간 쇼핑백이 생각났죠. 제대로 들여다본 쇼핑백에는 ‘경주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점심 먹었던 식당 카운터에서 팔던 그 경주빵을 사주신 거구나. 참 맛있어 보이던데...’ 쇼핑백을 풀어 헤쳐 보니, 박스 두 개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중에 한 박스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집에 애기 있으시죠? 애기랑 같이 드세요” 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경주빵 박스를 든 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젠...장...” 아마 살면서 경주빵이란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탄탄한 모양으로, 어찌나 예쁘게 촘촘히 담겨져 있던지 먹고 싶었지만 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오르자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먹을 거 하나 사 들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네요. 무심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늦었지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곤 집 앞으로 가서 경주빵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고 ‘미안하다’ 말하고 돌아섰죠.

지금은 과자 몇 봉지, 굴 한 봉지에 행복한 표정 짓는 아들과 아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혹시 사연이 방송돼서 그때 경주빵을 사주셨던 분이 들으신다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 금으로부터 35년 전, 제 나이 27세일 때 한참 젊고 혈기왕성해야 할 나이지만 그때 전 악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170cm 키에 몸무게가 50kg 정도 나갔지요. 얼마나 말랐던지 회사 창립 20주년 행사 때 허리가 가장 가느다란 사람을 뽑는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620명, 우리 생산부 대표로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소화불량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죽을 먹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매일 영양제를 찾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직장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지만, 갈 길이 멀었죠.

아내는 5남매 중 막내딸로 위로 오빠만 넷이 있었는데 얼마나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귀한 집 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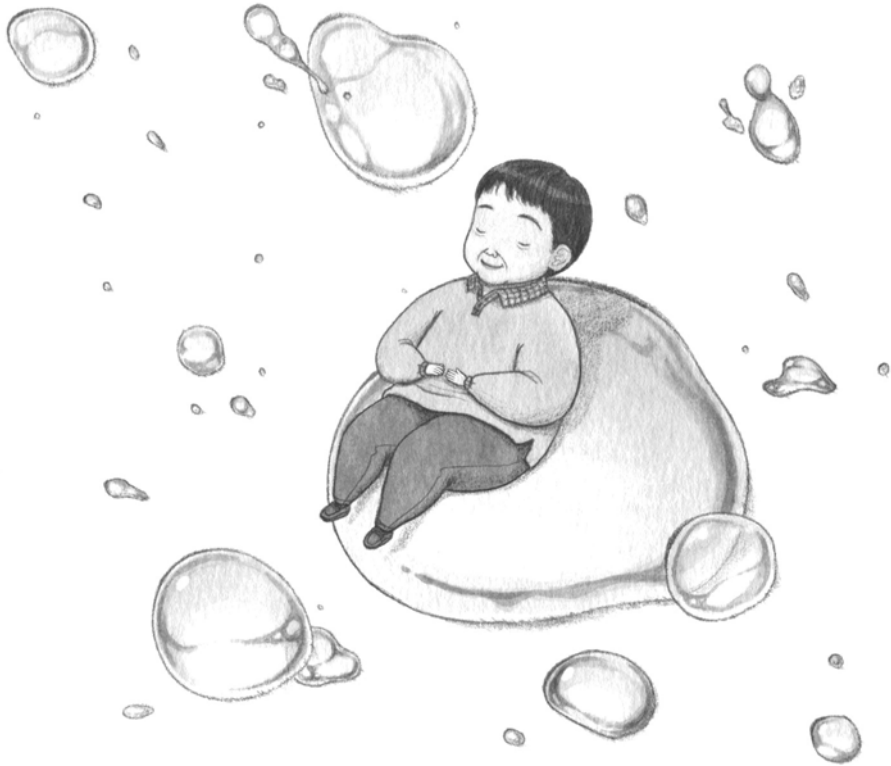
빠와 가족뿐인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시집간다고 하니 집안 반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가족들이 단체로 회사에 찾아와서 퇴근시간에 절 잡고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절 택했고, 한약을 6개월 동안 연탄불로 달여서 정성으로 간호해줬습니다. 그 덕에 제 몸은 점차 회복돼서 건강을 되찾았고, 1982년 3월 21일 우리 사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아 예쁘게 잘 키워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딸 모두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두 딸 모두 남편과 시댁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 보면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봐요. 제가 성남에 살 때, 친구가 있었는데 3형제 중 맏이었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동생들은 둘째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막내는 성남서중에서 전교 2등을 하는 아이였는데 1980년 8월, 제 친구와 막내동생은 휴가를 맞아 치악산에 갔다가 계곡물에 빠져 익사했고, 1년 후엔 둘째마저 전기 감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은 친구의 부모님은 세상을 원망하며 슬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지요.

저한테 이 얘길 전해들은 아내는 그날부터 제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면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로 인해 제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요즘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동안 날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이제는 내가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그리고 보



니, 아내에게 무뚝뚝한 남편인 저는 아직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질 못했네요.

“내 아내 원자 씨,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저는 1972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구두 관련 납품 일을 하다가 본사가 중국에서 제품을 해 오는 바람에 일감이 줄어 공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곤 영암에 내려와서 월출산 맑은 공기

를 마시며 살고 있죠. 이곳에 내려와서 처음엔 일용직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나주에 있는 골프장에 다니면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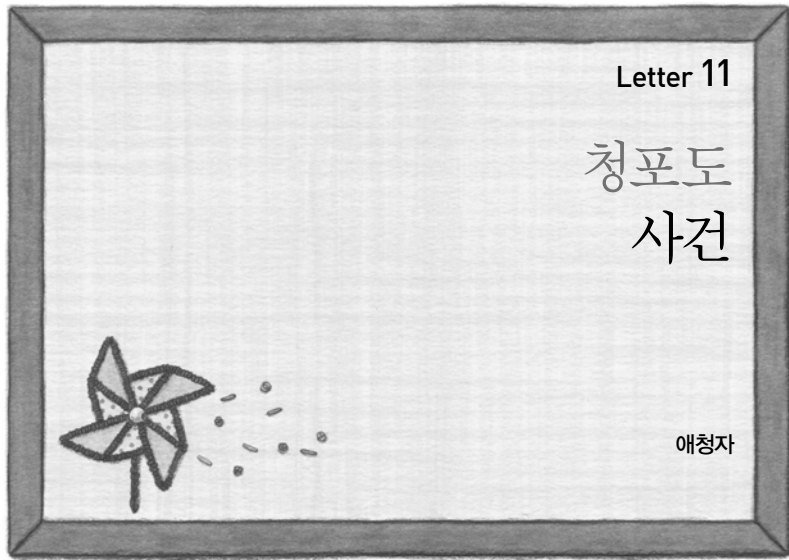
저는 올해 나이 62세 청년으로, 감나무 농사와 골프장에 출근해서 그린에 물주는 일을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복상태로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골프장에 도착하면 고객들이 오기 전에 10만 평 넓은 잔디밭을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물을 줍니다. 처음에는 달도 안 뜬 캄캄한 새벽에 스프링클러 스위치 뚜껑 찾는 것도 힘들었고, 또 산중턱 중간 중간에 있는 으스스한 무덤이며, 들짐승 소리, 여기에 불을 켜면 달려드는 모기와 벌레들의 공격까지 힘든 점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니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그게 제일 힘들었지요.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니 좋은 점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기 좋은 곳에 운동하러 가는 거다’ 생각하니 일이 수월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인지 제 지병인 알레르기 비염도 이 일을 하면서부터 거의 완치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복합니다. 여기에 MBC 라디오는 제 유일한 친구이자 스승이죠. 지난 30년 동안 여성시대와 싱글빙글쇼, 두시만세, 지금은 라디오시대, 재미있는 라디오와 함께하며 사연도 많이 보내봤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더 감동적이고 문장력 좋은 분들이 뽑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희은 누님, 그리고 서경석 동생, 방송에서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한 방송, 힘이 되는 방송, 용기를 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MBC 여성시대, 남성시대여, 영원하라!





**방** 금 대학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여섯 살 아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는 의료용 스테이플러 심 4개가 박혀 있지요. 그건 딱 3시간 전, 밤 10시에 벌어진 사고 탓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랑 5분만 놀게” 소리 치고는 안방에서 이리저리 뛰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뽀족한 방문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2cm 가량 두피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119를 불렀고, 그 사이 지갑과 휴대폰, 아이 신발과 머리에 덮 수건을 챙겼습니다.

제가 좀 짐작했죠? 성격이 대담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이 119구급차에 아들이 탄지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아들이 열 경기를 일으켰을 때였고, 첫 번째는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벌어진 일명 ‘청포도 사건’입니다. 그날은 제가 대형마트에서 청포도를 사왔고 마침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간만에 반신욕이나 할까 싶어서, 남편과 아들에게 청포도를 먹으면서 간만에 노트북으로 만화영화를 보라고 했죠.

잠시 후, 제가 옷을 훌러덩 벗고 막 씻어볼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비명소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찢어지는 남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들을 안고 있는데, 이미 아들의 눈은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이의 등을 마구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욕실에 들어간 지, 딱 1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영화를 보기 위해 쿠션에 비스듬히 누워서 포도를 먹었는데 그 포도가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거의 정신을 잃고 소리를 질렀고 저 또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119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저는 계속 울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9에 물었고, 전화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를 거꾸로 잡고 등을 치세요. 그러면 목에 걸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거꾸로 잡고 저는 등을 쳤습니다. 울면서 쳤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 등을 치는데 전화기에서 “놓여서 아이 상태를 보라”고 했습니다. 말대로 했더니 아이가 정신은 없으나 그래도 아주 희미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숨을 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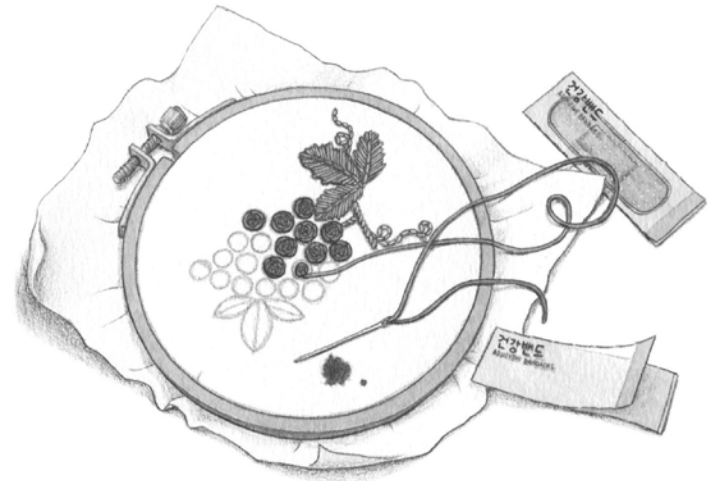
고 하니까, 전화기에서는 그 상태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바닥을 살펴봤더니, 저쪽에 반쯤 부서진 포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아이의 등을 쳤던 거지요. 그렇게 몇 분을 기다렸을까요. 119 구급차가 도착해, 남편과 아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구급차에는 보호자 한 명만 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짐을 챙겨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사이 제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간 숨을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떠올리며, 간절히 아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병원 응급병실 안에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누워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더니 살짝 웃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고요. 아들은 병원에 와서 이미 엑스레이 검사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정신없이 등을 치다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는군요. 다행히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이들은 아직 뇌가 어른들보다 유연해서 얼마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우리 세 가족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알았습니다. 사탕이나 떡, 포도가 목에 걸려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걸 말이지요. 화이트데이 같은 날에는 그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뉴스에서 누군가의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아휴, 참 안됐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건 온전히 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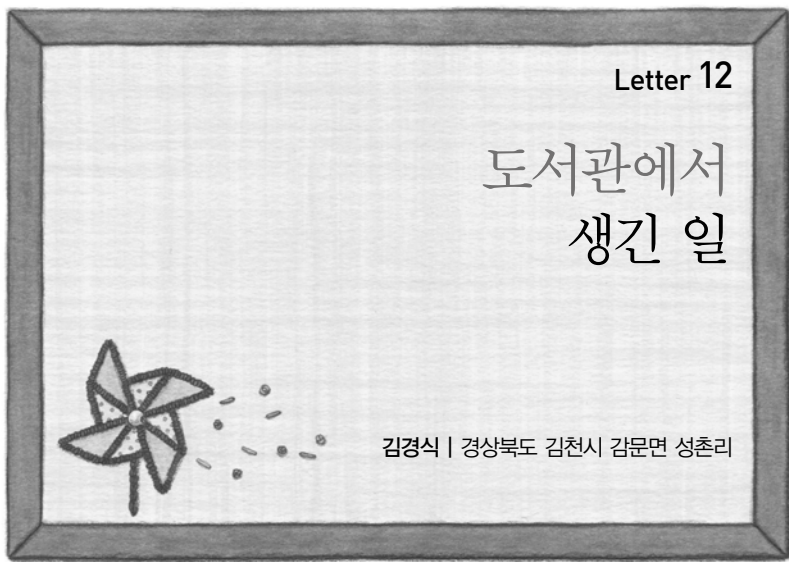
지금도 섬뜩합니다. 만약 그날 남편이 빨리 퇴근하지 않았다면,



청포도가 목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아이가 청포도가 목에 걸린 줄도 몰랐을 것이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거꾸로 잡고 등을 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성시대를 듣는 특히 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이의 조기교육이다 뭐다 자기계발서처럼 아이를 키우지 마시고, 대신 아이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이 커다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겪고 뒤늦게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인공호흡이나 목에 걸린 걸 어떻게 뺄 수 있는지, 화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임신하면 부모가 필수적으로 소아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 애인 콜택시를 타고 시립도서관에 갔다. 평소 타던 수동휠체어를 집에 두고 혼자 이동이 가능한 전동휠체어를 오랜만에 탔더니 운전이 서툴렀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학생들로 붐볐다. 로비에 전시된 그림을 감상하고, 3층 종합자료실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협소하여 문이 겨우 닫혔다.

책을 빌리고 아래층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로 가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막 닫히려는데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손에 책을 가득 얹고 슬리퍼를 끌며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열림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아주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아주머니가 다음에 탔으면 했는데 굳이 타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2층에 도착하여 내가 내렸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영문을 몰라 뒤돌아보니, 발가락을 손으로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전동휠체어 바퀴에 아주머니의 발가락이 밟혔다. 나는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화가 많이 났는지,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절뚝이며 그냥 가버렸다. 나의 부주의로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5분 쯤 지나서 아주머니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다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큰소리가 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사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한편으론 야속했다. 아주머니가 나의 연락처를 물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아주머니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하더니 내게로 왔다.

“번호가 틀리잖아요!”

나는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았다. 뒷자리 숫자가 잘못 적혀 있어 다시 알려주었다. 아주머니는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피하려는 줄 알고 화를 내며 전화를 다시 걸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아주머니에게 “치료를 부담할 테니까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자,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나를 보며, 활동보조인은 “별일 없을 거라”며 위로해주었다. 아주머니의 발가락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텐데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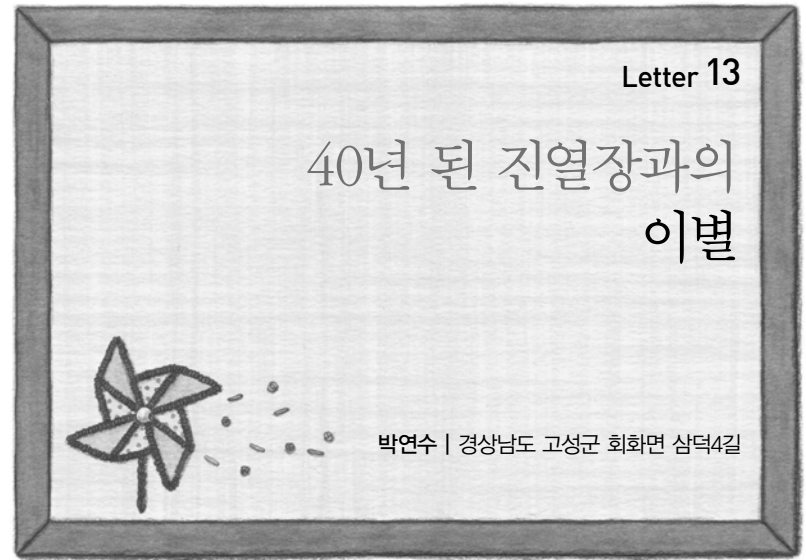


집에 있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알려드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방금 아주머니 전화를 받았다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밤늦게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어머니가 받으셨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단순 타박상이라 파스를 바르면 곧 나올 거라네요. 제가 부주의한 것도 있으니 치료비를 받지 않을게요. 아드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괜찮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돌이켜보면 아주머니 입장에서 내가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더 조심했어야 했다. 아주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인데도 나는 오히려 좁은 엘리베이터를 탄 아주머니에게 책임을 돌렸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사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여 상대방에게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야 하고, 사과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면 용서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서로 사소한 견해 차이로 불필요한 오해를 했다면 그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어쨌거나 아주머니도 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과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넘어갔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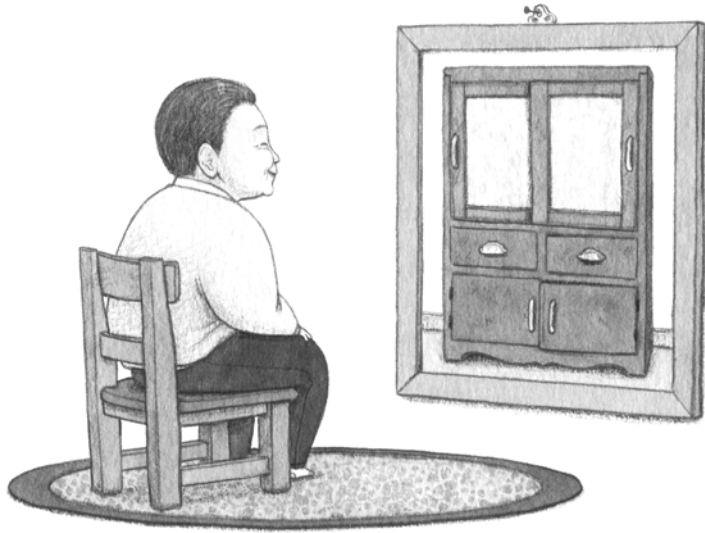
그 일을 계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한다. 주변에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 운전이 서투를 수 있으니 건강한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거나 잠시 내렸다가 타주기를 부탁한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주방에는 꽤 오래된 조그만 낡은 진열장이 하나 있다. 아주 투박하고 그야말로 못생겼다. 이 진열장이 우리와 만나서 함께한 세월이 40여 년이나 되었다.

갓 결혼하여 신혼살림이라고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시절, 넉넉지 못한 농촌 살림살이에 농번기에는 틈나는 대로 남의 집 일도 하고, 농한기에는 인근 도시의 공사장에 일하러 다녔다. 그러면서 폐합판 조각을 주워 와 깨끗한 부분을 잘라내서 방안 벽 한 칸에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잡다한 생활용품을 얹어놓고 지냈던 시절, 어느 날 집사람이 진열장을 하나 장만하자고 했다.

뜬금없는 말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으니, 집사람 말이 지난 가을 추수기에 남의 집 들일을 도와주고 품삯 받은 게 좀 있



다고 거기에다가 나보고 반쯤 보태란다.

며칠을 생각하다가 부모님께 상의 드렸더니 “이제는 살림살이를 너희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집사람에게 진열장을 구입하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다음 장날에 진열장을 구입하기로 가족끼리 의논을 했다. 이곳 장날은 4일과 9일에 서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디 알아본 결과 9일 장날이 길일이라고 그날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4일 장날은 보내고, 9일 장날에 그래도 큰 살림살이를 장만하러 가는 길이니 우리 부부는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고, 리어카를 끌고 약 4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시장 가구점으로 갔다. 그 시절에는 목공하는 분들이 가구를 직접 만들어서 팔던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시골 시장 가구점에 뭐 별 게 있었겠나 싶지만, 그 시절의 우리 눈에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가구들이었다.

구경만으로도 마음이 병병하고 정신이 없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구입할 적당한 크기와 가격을 물어보니 마음

에 든다 싶으면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가져간 돈에 맞추자니 너무 초라해 뵈고 해서, 둘이 고민 끝에 값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 주인에게 다가오는 선달 대목에 외상값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 런대로 마음에 드는 진열장을 구입해서 리어카에 싣고 들어서 밀고 당기면서 집에 왔다.

방안에 진열장을 들여놓고 보니, 불을 켜지 않아도 방이 환해진 것 같았다.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간 돈만으로 구입했다고 말씀드리고 외상 지은 것은 부모님이 떠나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거짓말을 훤히 알고 계실 것이다.

1972년 내가 스물다섯 살에 결혼했으니, 74년이나 75년 쯤에 구입한 것 같다. 지금 내 나이가 68세니 거의 40여 년을 이 진열장과 함께해 왔다. 1990년에 내가 새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 모시고 고향을 지키면서 새집을 지었다고 누님과 동생들이 합심하여 비싸고 으리으리한 메이커 가구로 옷장, 이불장부터 기타 모든 가구들을 장만해주었다. 그때 진열장도 새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누님과 동생들이 권유했지만, 우리 부부는 진열장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우겨서 그대로 사용했다.

2천 년대 중반에 집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진열장 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 이번에는 두 딸과 아들놈이 작당하여 자기네들 고모들과 삼촌들의 후원을 받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 부부는 “어려울 적 응솔은 안 버리는 법이다”라는 옛말까지 동원하여 겨우겨우 진열장을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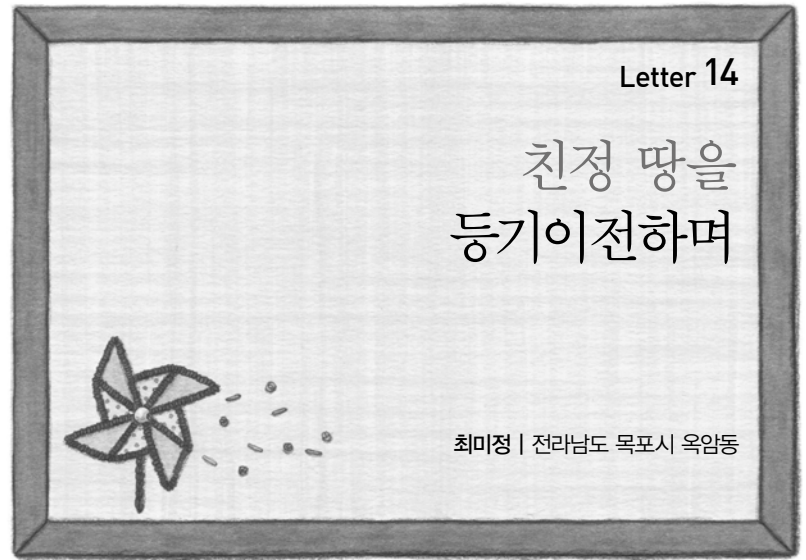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무도 허름하고 약간의 충격에도 삐걱거리서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할까 하고 기술자에게 보였더니, 그분이 하

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런 진열장은 쓰지도 않으며 생산도 안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폐기하고 새것으로 바꾸란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나름대로 수리를 해보겠다고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다 비우고 진열장을 마당으로 들어냈다. 나름대로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페인트칠도 다시 해서 들어왔더니 내가 보던 대는 괜찮아 보였다.

40여 년을 함께하면서 어려울 때나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이 진열장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곤 했던 일이 생각나서 가끔은 “진열장 너하고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자”고 마음으로 다짐하곤 했는데, 이번에 또 일이 닳쳤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들 딸들이 주방의 싱크대가 구형이고 낡아서 엄마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새것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싱크대를 기억자 형으로 설치하자면 진열장 자리에 냉장고가 이사 오고 진열장은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마누라까지 변심하여 아들 딸 쪽으로 함세하여 우겨대니, 옛말에 “인(人) 부족은 세(勢) 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도저히 나 혼자 버틸 수가 없었다. 며칠 밤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내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은 진열장을 촬영하여 대형 사진으로 뽑아서 진열장이 있던 위 공간에 걸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진은 내가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갈 때 내 품에 안겨주기로 가족들과 합의 약속하고, 나는 그동안 정들었던 진열장에게도 쓰다듬으며 이해를 구했다.

며칠 있으면 새 싱크대를 설치하러 올 것이다. 비록 실체는 없어져도 사진이라도 보면서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며 지금에 만족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도 보듬어 가면서 “주위와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사”고 진열장 앞에서 기도한다.



**엄**마 명의의 친정집 논을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 신청했습니다. 저는 4명의 오빠들 끝에 하나 있는 딸입니다. 오래전에 친정 오빠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빠의 형편이 점점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논 등기서류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빠와 저와의 거래였으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오빠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다 나눠줬다면서 명의도 바꾸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90세인 친정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5천 평 정도의 논농사를 쉬지 않고 짓고 계십니다. 논둑에는 콩, 고구마, 고추 등을 심고, 묘지가 있는 산밭에도 빈틈없이 곡식들을 심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기에 동네의 누구보다도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계시지요. 친정 동



네에서 아버지 또래의 어르신들 중 농사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지요.

아버지 모습이 안쓰러워 이제는 그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씨만 뿌리면 거두게 되는데 놀면 뭐하나?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 좋지, 심심해서 어떻게 일 년을 놓고 산다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만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이 너무 없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가며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아들 딸은 물론 손자손녀들에게까지 다 나눠주십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양가 모두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엄마 말씀에 의하면 ‘도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오셨답니다. 남의 집 셋방부터 시작해서 큰아들 낳고, 논 조금 사고 또 몇 년 후 둘째 낳고, 다음해 밭 한 패기 사기 위해 아버지는 내 일 남의 일을 가리지 않고 밤에는 지푸라기 꼬아서 팔고, 낮에는 들일하고, 건강하셨던 몸 하나로 동생까지 가르쳐가며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모시베 짜서 팔고, 목화솜 키워 팔면서 밭일을 하신 결과 한때는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듣기도 했었지만, 5남매를 다 대학까지 가르치다보니 약간의 돈을 팔기도 하셨답니다.

엄마는 앉아서 숨만 쉬기도 힘들 정도의 체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붙어있는 티에 도라지, 더덕, 호박, 양파, 강낭콩, 마늘, 고추 등 온갖 채소를 다 심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이번에 엄마가 담낭결석이 생겨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는 84세 되신 엄마가 영원히 제 곁에 계실 것만 같은데,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자꾸만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되면 복잡해지니까 빨리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엄마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가슴이 먹먹해옵니다.

엄마는 지금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설 수가 없으십니다. 두 무릎의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수술을 한 지가 10년 전 일이었지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군 재산인데, 부모님께서 5남매를 모두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서 다들 먹고 살만하기에 그 논밭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가져 온다는 것은 저의 가슴 깊은 곳이 아려오기에,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했다니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더 잘해 드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죽을 때 가져갈 수만 있는 것이라면 안 주고 꼭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못 가져가는 것이니까 걱정 말고 명의변경해라” 하면서 대신 엄마가 죽기 전에는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오빠들도 모두 명의만 가져갔을 뿐 농사는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거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리고 아프기만 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가? 꼭 그래야 하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리는 것일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새언니는 등기이전 신청 때문에 엄마가 허전하지 않겠느냐 묻는 저의 말에 “뭘 그런 것이 허전하겠어요? 어머니 필요하시면 다 팔아서 쓰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등기이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웬지 모르게 저 자신이 바보스럽기도 하고 새언니의 말도 귓가에 쟁쟁거리서 잠 못드는 이 밤입니다.



## 나의 자전거 "전쟁" 이

서 미원 대전시 대덕구 대죽동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한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처음으로 자전거와 접하게 된 등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이에요) 자원봉사를 오신분이 자전거 회사에 근무를 하신데 접이식 자전거를 홍보하는데 매력에 빠져 자전거를 구입 하면서 자전거와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작했을때 경사진 도로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면서 자전거와 바짝 붙어서 동행을 했지만 지금은 회사까지 가는 경사진 도로도 거뜰하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 출근을 하다가 자전거를 끌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초보시군요 몇 개월 지나면 저같이 타구 올라가실 거예요, 하면서 혼자 처음 자전거를 끌고 동행 할 때가 생각난다.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꾸준하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이제는 자연 스럽게 자전거와 친구가 되어 어디를 가도 대전시내는 거의



자전거로 움직인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한테 말을 건넨다. "가자, 오늘도 화이팅! 이다 하면서~~"

자전거한테 말을 건넨다 생각한 것 자전거에게 어음을 지어서 불러주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타서 건강해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쟁" 이라 이름을 지었다.

전쟁이라 동행하면서 최소 세가지 이상의 행복을 얻었다.  
 첫째는 건강을, 둘째는 시간을, 셋째는 돈을 . . .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면 버스타는 곳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하고 버스를 바로 타면 좋지만 버스가 눈앞에서 떠나는 것을 볼때면 보통 15~20분 정도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버스에서 내리 회사까지 걸어가야 하고~~

이렇게 버스로 출근을 하려면 보통 1시간이상 소요되지만 전쟁이라 동행하면 30분이면 충분해나카 항상 전쟁이라 동행을 한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눈올때는 걸어서 출근)

이렇게 전쟁이라 동행을 하다보니 친구들과 산행을 갈때도 별도 운동을 하지 않지만 끈질기 따라간다.



친구들이 몸매가 잡혔다고 부러워하지만 끊임없이 견행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견행어와 앞으로 얼마나 더 견학계 지낼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아무래도 견행어와 멀어질 확률이 높아 차량 구입을 미루고 있지만 차량을 구입해도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 견행어와 동행하려 생각하고 있다. 요즘같이 해가 짧은 경우에는 야광조끼 (작업장에서 입는것 &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는조끼)를 꼭 입는다. 처음 견행어와 동행 할 때는 견행어 앞뒤로 불빛을 달고 다녔는데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날이면 견전지가 쉽게 달고 견전지가 열어서 작동이 되질 않아 위험했다. 차들이 옆을 지날때면 뽕뽕 거리는 소리에 놀라 가슴을 쓰러내려야 하는일이 잦았으나, 야광조끼를 입고 다니니까 차들이 지날 때 불빛에 반사되어 차들이 뽕뽕거리지 않고 피해간다.

이제는 야광조끼를 입지 않고 견행어와 동행하면 내가 불안해진다. 전국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든 국민에게 야광조끼를 입으시라고 권하고 싶다. 나의 견장은 내가 지키는 것이 견명



한 것 같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 처음에 야광조끼를 입고 다닐때는 청소부야?? 하면서 놀리던 직원들도 이제는 야광조끼를 입지 않고 퇴근 지분을 적는 것을 보면 오늘은 자전거 안타구 오셨나요? 하고 묻는다.

직원들도 모두 공경을 해 주면서 좋다.

요즘은 모두가 운전과 다니다가 때문에 . . . . .

오늘도 견행어와 행복관 동행을 한다.

전국에 모든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에게 "야광조끼"를 권유하고 싶어 두서없는글을 적어본다.





# 전 세계인이 공기 비타민을 마시는 그날까지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거래고객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산에 오니 역시 공기부터 다르네”, “공기 좋~다!”. 빌딩 숲이 우거진 도시를 떠나 산으로 바다로 나가면 사람들은 오래 감탄사를 내뿜는다. 자연의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이 상쾌한 기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산과 바다가 뿜어내는 음이온 덕분이다. 이 같은 기분을 매일 느낄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상쾌하고 활기찰까?

한 달에 54원만 들이면 매일 매일 음이온을 마시며 잠들고 눈 뜨고 생활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음이온 공기청정기업체 ㈜에어비타가 이를 가능케 만든 것. 이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30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굴지의 기업이 됐지만, 지금의 ㈜에어비타가 있기까지 이길순 대표는 참으로 외롭고 아픈 짝사랑을 해야만 했다.

“지인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아이가 감기를 3개월 동안 앓았어요. 아이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 했는데, 가장 비싼 모델이 400만 원이고 필터 교체하는 데 또 7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간편하고 유지비가 안 드는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찰나, 이 대표는 일본에 있는 언니 집을 방



문하게 됐다.

“일본에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때부터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기 전문가가 돼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대표의 꿈을 들은 지인들은 ‘넌 참 뜬 구름 잡는 얘기를 잘한다고 웃어 넘겼지만, 사랑이란 참 지독한 것이어서 주변에서 코웃음 칠수록 더욱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다.’

“사랑에 빠지면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오로지 그 사람 생각 밖에 안 나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만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죠.”

하지만 사랑은 대개 아픈 법. (주)에어

비타는 이 대표에게 엄청나게 아픈 사랑이었다. 시시때때로 닥쳐온 위기의 순간을 이 대표는 자기 암시와 마인드컨트롤로 이겨냈다. 침대 위 천장, 화장실 문, 운전대, 책상 등에 ‘나는 할 수 있다. (주)에어비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이 이길 순을 이길 수는 없다는 글귀를 붙여 놓고 주문처럼 외었다.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며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의지를 다졌다.

“처음 제품을 완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줄 서서 사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안 사는 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마케팅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지독하게 아프기만 했던 짝사랑에도 작은 스파크가 일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개발한 제품이 제네바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된 것. 그 후에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그녀의 집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제품 홍보를 위해 일인다역을 자처했어요. 각종 전시회에 참여했고, 담배연기 테스트기, 제품, 신문광고 등을 잔뜩 챙겨 들고 PC방과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팔았어요. 공장 라인에 앉아 작업하기도 했어요.”

이 대표가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낸 가정용 공기청정기 ‘에어비타Q’는 각 방마다 쓰는 제품으로 공기 중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준다. 필터를 교환할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세척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



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24시간 사용해도 한 달 전기요금만 한 대당 54원. 차량용 공기청정기 ‘에어스틱’은 시거잭에 꽂기만 하면 되고, 휴대용 공기청정기 ‘에어볼’은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비염이 있는 분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종종 편지를 보내주세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사라졌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서 고객이 작은 행복을 느낀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 대표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에어비타의 제품을 개씩 쓰는 것이다. 지금도 (주)에어비타의 제품은 단일 전자제품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지만, 이 대표는 아직도 멀었다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

고 말한다.

이 대표의 인터뷰에 동석한 IBK 기업은행 연합동지점 이영호 지점장은 “간절히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대표님을 뵈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비타에 전화를 걸면 ‘공기 비타민을 만드는 에어비타’라는 컬러링이 나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기 비타민

을 마실 수 있도록 ㈜에어비타가 더욱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라며 바람을 전했다.

이 지점장의 말처럼 전 세계인에게 상쾌한 공기를 전할 그날까지 이길순 대표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꿈이 실현될 그날까지 오늘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다.



IBK기업은행 연합동지점 이영호 지점장(왼쪽)과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오른쪽)

### ■ 이길순 대표의 성공 노하우 3가지

1.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2. 자신의 그릇은 스스로 만들어 채워야 한다.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3.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에어비타

대표 이길순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301호 (1588-7025)

홈페이지 <http://www.airvita.net>



## IBK와 함께하는 특별한 기쁨 IBK 평생가족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단, 입출금식은 1인 1개좌)

상품구성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통합한도 적립식 (1인당 월 적립 통합 200만원), 거치식 (1인당 통합 1억원)

(2015.7.27 현재, 세진 단위:연%)

구분 (1년제 기준)	적립식		거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실세금리정기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기본금리	1,65	1,55	1,55	1,70
최고금리	2,05	1,95	1,75	1,90

제공혜택

- 입출금식 :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적립식 : 기본금리(추후변동가능) + 고객별 우대 최고 연 0.1%p + 주거래 우대 연 0.3%p
- 거치식 : 기본금리(추후변동가능) + 고객별 우대 최고 연 0.05%p + 주거래 우대 연 0.15%p

\*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은 조건 충족 시 제공되며, 최고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요약본으로 우대금리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1811호 (2015.7.10) 게시기간: 2016.7.31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은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행민☎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융·청정을 받지 않습니다. 유흥영업원인 사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중소기업 명품전

IBK기업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저점 거래고객

광신포장(주)

골판지상자, 칼라상자 전문제조업체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The World Best Kwang Shin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광신포장(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31  
남동공단 2블럭 3롯데(남촌동)  
Tel. 032) 816-4981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MBC

양희은·서경석  
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2.6(전월악)  
92.1(상대봉)

## 연변에서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대한이용원  
김순옥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저는 중국 연변에서 2004년  
도 4월 2일 날에 산업연수생  
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구미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데, 같이 일하

던 한 아주마이가 우리 아저씨를 소개해주었지요. 그래 만나서 처음엔 고저 쳐다보고 지내다가 아저씨가 마음씨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인신고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죠.

만나기는 2004년 12월에 만났는데 함부로 혼인신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함부로 사람을 믿기가 안 되더라고요. 고저 몇년 지켜보다가 2008년도에 혼인신고를 했지요. 만나보니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보였습니다. 데이트라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처녀 총각도 아니고 고저 시장에 채소 사러나 같이 가고 했지요. 우리 아저씨도 본마누라가 평생 아프다가 죽었답니다. 딸린 아이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저씨 열일곱 살 때부터 물지게 지어가며 이발 기술을 배웠답니다. 이발한 지 한 오십 년 되었다고 합니다.



제 고향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에는 아홉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너무 아프고, 할아버지도 많이 아팠는데 누군가 연변에 가서 물을 바꿔 먹고 살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냐 해서 연변에 이사를 왔습니다. 연변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들은 그저 저 보고 공부 잘한다고 했습니다. 문과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1등이었습니다. 시를 쓰면 전교의 흑판보에 제 거를 써냈습니다. 시옹변대회를 하면 제가 나가서 꼭 일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과는 별로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질이 꿈이었습니다. 내 대학공부 좀 하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 아버지가 “다른 집 아들은 다들 돈 벌러 가는 데, 들어앉





아 공부하면 뭐하겠나” 해서 아버지랑 같이 벼농사, 콩 농사를 짓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스물다섯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내 나이 사십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딸내미를 공부를 시켜야 하는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일, 옷매장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가면 다들 돈을 번다고 해서 연변에 있는 집을 팔아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을 벌면 연변에서 반년 버는 것과 맞먹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한국 돈 천만 원, 중국 돈 육만오천 원이 필요했어요, 집을 파니 삼만오천 원 밖에 되지 않아 친구한테 빌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딸은 외할머니 집에 맡기고 왔습니다. 딸을 두고 오는 심정은 말로 못합니다.

한국에 올 때 한마디로 무서웠어요. 중국에서 들은 한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방탕하고, 남자들은 술집만 다니는 아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잘살고 깨끗한 나라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도 꼭 참으며 일했습니다. 구미공장에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돈을 벌어서 다 연변에 보냈습니다. 전화비도 아까워 중국에 전화해서 “니 잘 있나? 그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어라” 그 말만 하고 딸가다 전화를 끊곤 했지요.

핸드폰 회사에서 액정 검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노는 날에 아저씨가 구미로 놀러오고, 저 쉬는 날 아저씨 사는 부산으로 놀러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면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저씨랑 함께 살면서 제 말소리 때문에 오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연변 억양이 탁하거든요. 그러니 세게 느껴진다고 해요. 지금은 오래 살다보니 억양이 좀 부드러운데 처음에는 우리 아저씨 말이, 제 말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가끔씩 제가 뭐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아저씨 “왜 성질 내느냐?” 하고 저는 “내 성질 낸 게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며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가끔 왜 성질 내느냐는 말을 잘 들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면도를 배우면 어떻게냐고 해서 시작했는데, 아이고 말도 말아요. 칼 들고 시작하는 데 손이 막 떨리니, 고저 손님들 얼굴 벨까봐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잘못해서 손님 얼굴에 피가 나면 정말 죽겠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아저씨가 한 분 있어





요. 얼굴을 좀 세게 베었는데 면도 다 하고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땅바닥에 딱 던지고 갔어요. 쫓아가서 요금을 안 받겠다고 돈을 주니 안 받고 화를 내고 가는 겁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작한 면도가 이제 십년이 돼가니 능숙해졌습니다. 잘하기까지 한 이년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도를 하면 손님들이 주무시는 데 그거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면도를 잘하면 쿨쿨 잘 잡니다.

처음 면도 실력을 늘리기 위해 공짜로 해주겠다고 옆집 할아버지를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면도를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툴렀지요. 한 사십분이나 면도를 했는데 콧수염도 반쯤 깎고, 콧볼도 한쪽만 깎고, 귀옆머리도 한쪽만 깎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하시더니, 그대로 줄행랑을 치셨습니다. 그 후로 그 할아버지 한 번도 못 뵈었지요. 하하하. 그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요. 그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에휴~ 지금 생각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그래도 이제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요즘 주말에는 한 삼십 명, 평일은 열댓 명 정도 면도를 합니다. 주말이면 우리 고향사람들이 여성시대 방송을 듣고 왔다고 옵니다. 김해, 양산, 물금 등에서 저희 이용원을 찾아옵니다. 남자들이 이발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까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제 편지가 방송되면서 고향사람 얼굴 보고 싶다고 온 겁니다. 그분들하고 고향 얘기하고 여기 얘기 하면서 향수를 달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릴 적 흑룡강성 목단강에 살던 친구 김옥례가 저희 이용원에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몰라보겠더니 찬찬히 보니 어렸을 적 얼굴이 있더군요. 얼굴에 보조개가 있고 웃을 때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웃는 데 맞다, 맞았습니다. 내 동무 김옥례였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서 둘이 온 밤 연설하다가 지났습니다. 옛날 얘기, 요즘 얘기, 앞으로 얘기를 나누고 친구는 서울로 갔어요. 다음에 또 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고저 가게 현상유지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더 늙어서 남의 손 안 바라고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아저씨 옆에 바짝 붙어 오래 살고 싶습니다.

## 코너 속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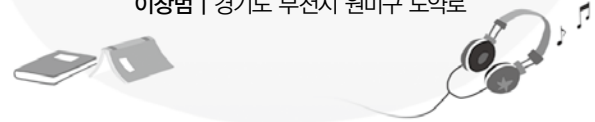
일러스트 | 조신애

- 83 장용의 단필총 테일러 이등병의 병영일기
- 89 나의 연애시대 그 남자의 서류 5종 세트
- 92 일요일엔 편지를 딸은 잘하고 있어요
- 95 일요일엔 편지를 엄마의 미역국
- 98 일요일엔 편지를 엄마, 생일 축하해요

장용의 단 · 필 · 충

테일러 이등병의  
병영일기

이창범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92년 6월 16일, 외아들이라는 벼슬로 인해 군 입대를 하는 날, 춘천의 102보충대로 아버지, 어머니, 출가한 누님 두 분이 모두 집결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무척 더웠고, 저희 가족의 눈에서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마구 쏟아지며,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께 선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라도 들어 보내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6주간의 신병교육대를 수료할 때쯤, 저는 미국의 탤런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학을 전공했던 터라 왜소한 몸매지만 다부진 체력이 있었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보니, 조교가 저에게 머나먼 정글에서 나오는 흑인 병사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테일러.'

그 테일러는 신병교육대를 퇴소하고 소대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고참들이 저에 대한 프로필을 읊으라 했습니다. 저는 고향은 어

디이고, 거주지는 어디이며, 체육학을 전공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다고 말하는 순간, 말년쯤 돼 보이며 입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함께 구사하는 내공의 고참이 “쓰토프~! 즉, 잠시대기. 니 시방 머래캐노? 시방 체대를 다녔다고 했는가? 아따 그라모 공 쯤 까 차겠는디? 공 쯤 차 봤는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네, 아주 잘 잡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법대 나왔다고 모든 법을 잘 아는 거 아니고, 체대 나왔다고 모든 운동 잘하는 거 아닙니다. 테니스를 전공했던 제가 발로 할 수 있었던 운동은 오로지 달리기뿐 축구는커녕 족구도 못하는 X발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참이 이랬습니다.

“아따 아그들아~ 우리 소대에 물건이 들어왔으니끼네, 15중대랑 10만원빵 축구시합에 야를 센터포워드로 확 쥐버러부러라~ 잉!”

축구시합 당일, 그날 저는 목이 머리와 몸통으로 스퍼드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공을 못 찬 것이 들통나서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공은 차보지도 못하고 축구시합 내내 원산폭격으로 중대 응원을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소속된 중대는 16중대였습니다. 그러나 시합을 하기로 했던 중대가 15중대였는데,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6주 동안 머물렀던 중대가 15중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병교육대의 물이 텅 빠진 저로서는 저를 포함한 각 중대의 대표선수들이 센터라인에 서서 상호간의 예의를 표하고 난 후, 공을 못 찰 바엔 힘찬 목소리로 중대 파이팅이라도 외쳐야겠다는 신념으로 “15중대 파이팅!”을 앞산에 메아리가 치도록 외쳐댔습니다. 고요하다는 태풍의 눈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포성이 멎은 전장의 삭막함 속에 그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번갈아 가며 쓰던 고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따~ 머시여? 시방 니 머라 씨부린냐? 이런 싸가지! 니 언능 저리 나가서 머리 박고 있어야!”

그날 밤 저는 밤새 16중대를 외치며 다음 날 동해의 일출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실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해서 고참들 눈에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저 혼자 북으로 침투해 평양을 점령하라 해도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번갈아가며 쓰던 고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따, 다음 주면 우리 부대가 유격훈련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



몸보신 좀 해야 쓰겠는데, 어디 삼계탕 같은 거 없냐? 내사 정구지 먹고는 유격훈련 안 할까다.”

순간 저는 아직 신계서는 내 머리카락 꼬트머리는 잡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얼마 전 동기녀석에게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부대 뒷산 중턱에 80대 노부부가 닭을 많이 키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는 글도 모르시고 셈조차 하지 못해서 가끔 부대원들이 몰래 닭을 서리해서 먹는데 노부부께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저보다 몇 개월 고참병인 홍 일병과 초소 야간근무를 같이 서게 되었고, 강 병장님께서 닭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시니 닭을 서리하자라고 건의하자, 홍 일병 또한 그동안 고문관이라고 강 병장 눈 밖에 난 터라 저의 제안에 흔쾌히 수긍하여 그날 밤 닭 한 마리를 서리하였습니다. 강원도 인제 출신인 홍 일병은 손쉽게 닭 모가지를 비틀어 자고 있던 취사병에게 내일 아침 이 닭으로 백숙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 날 아침 강 병장과 몇몇 선임들은 사병식당이 아닌 내무반에서 백숙을 먹으며, 저와 홍 일병이 닭을 서리해 온 이야기를 취사병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군요.

백숙을 다 먹고 난 강 병장과 여러 고참들은 저와 홍 일병을 대견하다는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김 일병과 저는 ‘이제는 됐다’라는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계서 저의 머리카락 꼬트머리를 잡고 계시다는 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침에 인사계가 출근하자마자 대대본부로 회의를 갔고, 회의에 다녀온 인사계는 전 중대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어제 부대 뒷산 노부부 집에서 닭 서리해간 놈 있으면 나와라!”

순간 홍 일병과 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인사계는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중대가 아니라면 모를까, 만약 우리 중대라고 밝혀질 경우 일이 커질 것이니 각오하고, 만일! 전 중대를 조사해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대장님의 지시로 전 대대병력을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하셨다.”

인사계의 그 말에 저와 홍 일병은 관등성명과 함께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니들이냐? 그래, 달구새끼 서리해서 어쩐냐?”

“네! 밤에 잡아서 먹었습니다!”

“둘이서 다 먹었다던 말이나? 야, 이놈들아! 그 노부부가 글도 모르시고 셈도 못하시는 건 알고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흠, 짝은 셀 수 있으시다는 건 물랐지?”

헉!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그 노부부는 부대원들이 닭을 서리해 갔을까봐 닭을 짝수로 키우고 있었고, 짝수가 맞지 않으면 부대로 달려와서 닭 값을 요구하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홍 일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한 마리만 서리하게 되었고, 짝수가 맞지 않은 걸 알게 된 노부부는 아침에 부대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계는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닭을 서리하려거든 두 마리를 했어야지 왜 한 마리만 서리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드냐?”

그 후 저와 홍 일병은 8월부터 12월까지 대대 내의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라는 대대장님의 명을 받았고, 고참병들로부터 저는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92년의 여름은 지나가고, 어느덧 강원도에서의 첫 겨울

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12월 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눈을 하루 종일 샅으로 치우고 내무반으로 들어와 선임병들이 TV 앞에서 무언가 심취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92년 MBC 대학가요제였습니다. 저는 내무반에 들어와서도 TV를 볼 수 있는 계급이 아니었기에 침상에 각을 잡고 앉아서 슬슬 걷는질로만 TV를 보던 중, 참가번호 6번이 되자 고참들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이름이 전남순? 남썩이가 머꼬? 얼러리여! 하루 종일 썩가 빠지게 눈 치우고 왔고마 제목이 비가 오면? 장난 하나? 문디가스나~.”

고참의 이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똥!” 하고 웃음이 나왔고, 그 순간부터 저는 또 다시 원산폭격의 자세로 귀로만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전남순. 가지가지 한다. 그런데 노래는 잘하네.”

곧이어 당직사령의 일석점호 명령에 따라 TV 시청은 중단되었고, 저의 원산폭격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홍 일병과 저는 부대 내 외부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화장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신문을 보게 되었고, 쪼그려 앉아 신문을 대충 훑어보던 중, 조그만 활자의 MBC 대학가요제 수상자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상 최영수, 금상 고지아, 은상 전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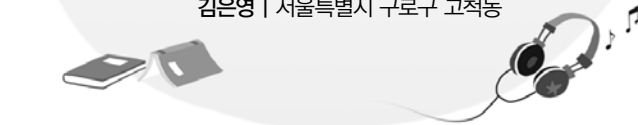
전남순? 누가 그랬던가요? 세상은 넓고 인연은 좁다. 이 남순이 가요, 지금은 저의 두 아이의 엄마, 저의 아내입니다. 전역 후 우연한 기회에 집사람을 알게 되었고, 저는 군생활의 추억을 떠올리며 집사람과 가까워져서 지금은 17년 째, 한지붕 아래 살고 있답니다.

참,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그 강병장, 서울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연애시대

## 그 남자의 서른 5종 세트

김은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우리는 소개로 만나서 정말 짧은 연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 나이 32살,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는 참 착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 해에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두 번이나 있었답니다. 한 번은 사촌동생이 10년 가까이 연애한 남자랑 결혼을 하려는데 그 남자가 제 사촌동생을 속이고 속여서 결혼식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그 남자의 모든 거짓이 밝혀져서 결혼이 파토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촌언니가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 형부가 사채빚이 1억 넘게 있었고, 시부모님도 이혼하신 건데 그걸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촌언니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결혼에 대해서 엄청 예민했었는데 바로 다음 결혼 타자가 저였습니다. 집안에서 저의 신랑감이 인사 오면 엄청나



게 까다롭게 볼 것이 뻔할 것이니 '나는 시집 다 갔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팅으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만난 지 3번 만에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달간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두 번이나 결혼에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내가 당신이랑 짧은 시간 만났는데 너를 어떻게 믿고 결혼하느냐? 너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신용정보, 재직증명서, 건강검진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종 서류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알겠더라며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로 약 4~5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문자에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하면서도 제가 먼저 연락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 선물이 있으니 퇴근 후에 보자고 말이지요. 저는 무슨 선물일까 하면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만나서 내민 건 바로 서류 5종 세트였습니다.

본인이 생각 정리하고 서류 준비하느라고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며, 이번 주에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얘기한 서류 5종을 서류봉투에 딱 넣어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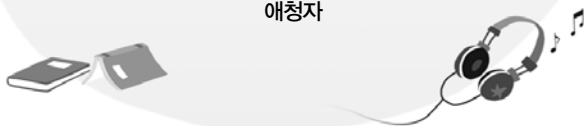
그렇게 그는 부모님에게 한번에 허락받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 지금 뭐랄까 뭔가 좀 허전해요. 사람은 진국이고 참 착한데 센스와 눈치가 부족합니다. 센스와 눈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일요일엔 편지를

## 딸은 잘하고 있어요

애청자



혼자 사는 딸 때문에 가슴 졸이는 엄마, 아빠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느덧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지도 4개월이 되어 가요. 엄마 아빠의 품에서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살아온 지 18년. 집안 형편과 공부 때문에 혼자 자취해야 한다 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건 괜찮니? 밤에 무섭지는 않고?”

엄마의 전화에 애써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부모님께 투정부린 얘기, 아침밥으로 엄마가 뭘 해줬다는 얘기, 심지어 “나 아침에 엄마랑 또 싸웠잖아.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그놈의 잔소리 잔소리!” 하는 친구들의 투정마저 부러워서 밤마다 자취방에 틀어박혀 많이 울곤 했는데, 오늘은 그때 생각하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쯤이면 “엄마 저 집에 왔어요” 하는 제 전화를 받고는 안심하



고 잠자리에 들으셨을 엄마, 아빠.

일주일엔 한 번씩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머리만 감고 뛰어가기도 하고, 속 버린다며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라 하는 엄마와의 약속도 못 지키는 딸이지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기억나요? 자취한지 일주일 되던 날, 학교 마치고 내가 집에 올 때까지 엄마는 자지도 않고 내 전화만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그날, 엄마의 그 얘길 듣는데 가슴 아래서 왈칵 눈물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울먹거리는 내게 “우리 딸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시는데 ‘다 포기하고, 엄마 아빠 옆으로 가고 싶어요’ 철없는 소리를 할 뻔했어요. 뻔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아빠가 가끔 말하는 대로 “우리 딸이 언제 이만큼이나 컸지?” 물을 만큼 저는 부쩍 성장했지만, 오늘처럼 야자 마치고 온 늦은 밤이면 제 아무리 씩씩한 척해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걸 보니 부끄럽게도 마음은 아직 아기인가 봐요.

어쩌면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인지 모르는 고3,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 수능을 앞두고 내 마음 다스리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수 있도록 힘내서 최선을 다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워서 말 못했지만 딸이 항상 사랑하는 거 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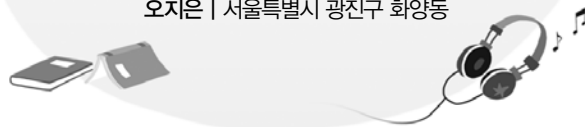
나의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 엄마의 미역국

오지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엄마께.

엄마, 결혼하고 3년, 나는 두 명의 아이를 잃었어. 첫 번째 아기는 9주 만에 나를 떠났고, 어렵게 어렵게 1년 반만에 두 번째 아이를 만났는데 참 마음이 불안했어. 첫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지라 혹시나 내 실수로 또 그렇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조심하며 엄마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천장만 보며 누워 있었는데, 엄마 집이 불편했어.

매일 엄마랑 붙어 있으니 우린 자주 부딪혔고 그럴수록 나는 심리적으로 좀 예민해졌어. 또 그걸 본 엄마는 지친 내 모습에 속상했고 나는 우울하지, 속은 울렁거리지, 결국 엄마와 싸우고 집을 나와 버렸어.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우린 또 싸울 게 뻔했으니까 내겐 조용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지.

그로부터 5일 후, 뱃속에 있는 아이가 9주쯤 되었는데 병원 검진



이 있었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는 거야. “얼마 전까지 건강하던 아이가 왜요!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는 게 말이 돼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

병원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데 역장이 무너지며 눈물이 흘렀어. 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 누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엄마 얼굴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내일 수술이 있기에 우리 집으로 갔다가, 뱃속에 아이를 잃고 다시 혼자가 되어 엄마 집을 찾아갔어. 왜 이런 수술 하고나면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며 소고기 슬슬 볶아 엄마가 잘 끓이잖아.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은 나는 무표정의 엄마를 바라보고만 앉았어. 부엌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고 가지런히 내 앞에 미역국과 수저를 놓으시곤 다시 돌아선 엄마. 울지 말자, 울지 말자 마음을 다잡고, 한 수저, 두 수저 입으로 밀어넣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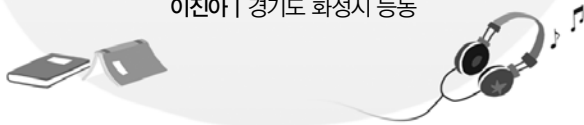
다시 엄마는 나를 보살피기 시작했고 나는 엄마의 보살핌으로 주저앉은 마음 세우고, 아이를 기다릴 용기를 얻었어. 두 달간 엄마 곁에 있으면서 내가 엄마에게 신세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어.

엄마, 엄마가 내게 쏟은 정성 잘 기억하고 있어. 고집 센 딸이라 엄마 마음 자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엄마 항상 건강하구 앞으로도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손주 안겨줄게. 엄마 사랑해.

일요일엔 편지를

##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진아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엄마, 생일 축하해요.

벌써 우리와 함께한 세월이 28년이나 흘렀어요. 오늘은 엄마의 신 네 번째, 음력 생일입니다. 처음 엄마를 잃은 제가 새엄마를 만난 게 9살, 동생들은 7살, 5살이었죠. 그때 엄마는 잘해주기도 했지만 가 시 돌친 말들도 많이 해서 엄마 잃은 뒤 사랑을 갈구하는 저희를 아프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두고 봐, 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 어렸던 엄마가 안쓰러워요. 처녀인데다가 고작 스물여섯 살이었던 엄마가 갑자기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충격이 대단했었겠구나 생각해요. 열두 살 나이 차이가 나는 아빠랑 사는 것도, 품에 안길 듯 안기지 않는 남의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그 때문에 엄마의 부모님과 의절을 한 일도... 저는 엄마 속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렸어요.



아빠랑 크게 다투었던 날에 아빠를 무서워하는 우리 삼 남매를 버리지 않고 같이 집을 나가 여관에서 잔 날. 깨끗이 씻겨보겠다고 대중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이고 때를 벗겨줬던 일. 생일이면 잊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 생일파티 해주고, 고3, 고1, 중2가 되는 우리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6개를 싸며 힘들게 하루를 시작했던 일. 모두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저라면 이겨내지 못했을 일이에요. 엄마가 희생하고 노력한 덕에 저희 셋 모두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요즘 아빠, 엄마가 사업을 접고 노후 걱정을 하고 계신 거 알아요. 다 키우고 나니까 내 자식은 아니라는 생각에 더 걱정되고 불안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엄마가 키운 엄마의 자식들이고, 항상 엄마 곁을 지킬 거라는 거 이번 생일을 맞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하고 우리 오래 같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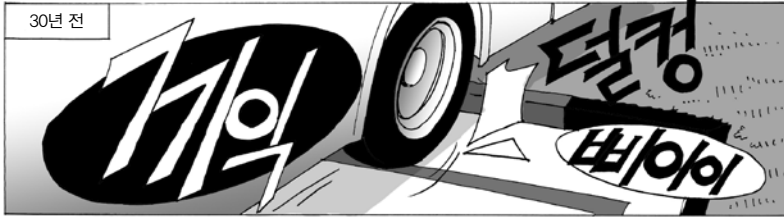
- 2015 엄마의 생일날, 첫째 딸 진아 올림.



# 여자의 마음을 몰랐었네

그림 | 김곡, 우영미

※〈여성시대〉가족 김광서(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그렇게 우린 누나 - 동생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지금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자봉 아래 잘살고 있습니다.





## 규칙을 자주 위반하는 아이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청소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만든 규칙을 아이가 잘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만큼 비현실적인 것도 없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실망을 낳기 마련이고 실망은 아이에 대한 불필요한 배신감과 분노로 이어진다. 규칙 위반이란 상황에 대해 들여다보면 아이와 부모는 다른 관점에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부모가 볼 때 규칙 위반은 아이들의 잘못이다. 약속을 어기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다. 반면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규칙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어른들이 정해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절대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과연 건강한 아이일까? 부모 입

장에서 당장은 키우기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더 큰 걱정엔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융통성도 없고,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재미도 없는 아이이기 쉽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규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아이만큼이나 부모가 정한 규칙을 모두 지키는 아이도 걱정스러운 아이다.

상담을 할 때면 나는 부모들에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 마음속에 두 개의 선을 그어두라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 선은 아이와 정하는 규칙이다. 두 번째 선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아이 행동의 기준선이다. 아이에게 말한 규칙, 즉 첫 번째 선은 조금씩 어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선이 있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두 번째 선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단 하나의 선만 가지고 있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가 된다. 모험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늘 아이와 부딪히는 부모가 되기 쉽다.

물론 규칙을 지나치게 자주 위반하거나 규칙 자체를 무시하는 아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를 싫어하는 아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게 화를 내는 아이는 규칙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규칙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야말로 아이가 원하는 것이다. 나 같은 놈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규칙을 위반한다. 스스로 쓸모없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한 비난을 기대한다.

다음은 관계의 문제가 있는 아이다. 규칙을 위반하면 어른들을 자극할 수 있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른들의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규칙을 위반하면 된다. 말 잘 듣는 아이보다는 문제아가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 또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끊

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기도 한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에서 벗어나면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옥죄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관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또는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 아이는 규칙의 위반을 통해 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충동성의 문제가 있다.** 아이들 중 일부는 충동성이 강하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이 아이들에게 참는 것은 몇 배나 힘든 일이다.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욕구와 충동에 사로잡혀 후회할 일을 쉽게 저지른다. 물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자기는 원래 이런 놈이라고 생각하며 도덕성에 결함이 생긴다. 두뇌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의 발달이 늦은 경우가 이렇다.

이 아이들에 대한 도움은 원인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자신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상처 입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울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자학적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 야단치고 혼내는 접근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를 끌어안고 네게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음을 믿도록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

**관계의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아이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증상은 상당히 나아진다. 물론 관계에서의 문제가 시간을 통해 반복되며 서로 간의 불신이 깊어진 경우라면 믿음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변의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이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아이는 규칙을 위반하

는 것을 멈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충동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아이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부터 줄여줘야 한다. 부모의 지갑에 자주 손을 댄다면 용돈을 주는 대신 부모는 지갑을 자물쇠가 있는 서랍에 잘 보관해야 한다. 밤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자주 잠을 설친다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아이의 전화기를 부모가 보관해야 한다. 아이의 의지를 믿지 말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아이는 규칙을 덜 위반하게 되고, 규칙을 덜 위반해야 아이의 자존감이 지켜진다. 물론 청소년 아이라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곤란하고 아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아이와 부모가 맺은 관계의 모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규칙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언제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다른 한 측면은 사랑이다. **실제로 규칙을 자주 위반하는 아이를 해결하는 힘도 사랑에서 온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사랑이고,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다.** 충동적인 아이가 부모의 단호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애정 어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무가 흙 위에서 자라듯 규칙은 사랑이라는 기반에서 자라나야 한다. 사랑이 없는 규칙은 흙을 떠난 나무와 같아 기껏해야 나무 몽둥이에 그치고 만다. 사랑이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다. 부모도 아이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부모는 사랑할 힘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그때 다시 기억해야 할 말은 사랑의 회복이다.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순간, 한없이 다정했던 아이의 모습, 내가 아니면 돌봐줄 이 하나 없는 우리 아이를 떠올려 보자. 그렇게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자. 어쩌면 규칙은 그 다음이다.



당일치기 여행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자기가 태어난 곳의 날씨, 음식, 철따라 바뀌는 빨래에서 나는 햇살의 내음, 과일 맛, 땅과 숲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편하고 좋을 게다. 익숙하니까...

국민소득이 몇 배나 더 되는 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다 해도 내 가족과 친지들이 사는 내 나라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내 집의 재발견이라 하겠다. 요새 나는 당일치기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새벽에 떠나 한밤중에 돌아온다.

얼마 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김포에서 출발하여 오사카를 다녀왔다.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여 간사이공항에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연결되는 초특급 기차를 타고, 시내 나가면 12시쯤 되고 맛집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10분이었다. 점심을 늘어지게 잘 먹고, 사람들 물결에 묻혀 번화가를 걷고 누구나 꼭 사진 찍고 간다는 곳에서 지나가는 일본 청년 붙들어 놓고 기념사진 한 장 찰칵 찍었다.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주로 편찮으신 부모님 얘기, 건강 얘기, 그동안 다닌 여행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 3군데 이상 꼽기 등등. 초특급 기차, 버스 안, 공항대합실에서 많은 얘길 했다. 졸업하고 45년이 지난 동안, 서너 번 정도 만났나 싶은 친구인데도 얘기하는 동안 45년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심오했다. 아, 이래서 여고 동창 친구가 좋다 싶었다.

다들 처음인 당일치기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니, 되게 유용하고, 전

혀 피곤하지 않고, 실속 있었다며 덕분에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하나가 생겼다고 좋아했다. 눈요기 많이 하고, 수도도 마음껏 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고 덕분에 힐링 잘 됐으며, 벌써 또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진다는 문자가 왔다.

마일리지로 표를 끊은 친구도 있었고 회비는 1만 엔씩(96,000원) 모아서 1,100엔씩 돌려주었으니 8,900엔(86,000원)이 들었다. 배낭이나 큰 핸드백을 들고 와 짐이 없어 너무 좋다고도 했고 혹 무언가를 살까봐 접이식 시장가방도 준비해 왔다. 무얼 하든 동년배끼리라 통하고, 이해했고, 걷는 속도, 물건 보는 것과 살 것과 안 사도 될 것의 구분이 비슷해서 좋았다. 슬렁슬렁 스트레스 없이 느긋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죄다 약국에 들어가 이런저런 약들을 사더라는 점이다. 처방 필요 없는 파스, 동전파스, 자석, 발바닥에 붙이는 피로회복 접착제, 소화제 등.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어느 집이나 편찮으신 부모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식구가 있고 아이들의 결혼문제, 손자 돌보기 등등 고통의 얘기꺼리가 있었다. 항암 치료중인 며느리에게 음식을 해 먹이며 활기를 되찾으신 친구의 친정 어머니는 항암 끝내고 돌아가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어찌니 하며 벌써부터 걱정이니란다. 이젠 그만 쉬시라는 게 해결책이 아니란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을 때 장을 보고,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며 아흔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느낀 바가 많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꼭 챙겨줘야 할 누군가가 있을 때 어머니는 힘이 나시나보다. 엄마는 강하니까, 엄마니까.

어쩌면 우리 각자 나를 꼭 필요로 하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나 사람이 있을 때 활기차고, 생기 도는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가족의 힘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진행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것이 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참 어른’이 되어보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속 코너 중의 ‘한 평의 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평 남짓 공간을 마련해놓고, 지나가는 누구나 들어와서 벽에 적혀있는 질문들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들어보는 코너다.

세 번째 녹화 날, 그날의 질문은 ‘왜 사느냐?’는 것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참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남녀가 ‘한 평의 방’에 들렀다.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은 금세 방을 빠져 나갔다. 그런데 삼십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방을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중 90% 이상이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바로 ‘가족’.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곱씹다가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뒤로 돌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조절하며 겨우겨우 말을 마무리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몰래 눈가가 뜨겁게 축축해졌다.

그렇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각박해졌어도, ‘가족’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힘인 것이다. 여성시대와 함께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어간다. 하지만 두 시간 방송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청취자 사연의 대부분이 ‘가족’ 이야기라는 사실은 이제 알 것 같다.

20년 동안 코미디언으로 살아왔다. 항상 새롭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찾느라 고민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익숙하고 흔한 얘기보다는 자극적이고 이상한 이야기에 귀를 내밀어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여성시대 가족들의 사는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흠뻑 빠져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다. 웃을 때엔 큰 문제가 없는데 울음이 나올 때, 울면서 사연을 읽으면 방송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동안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크게 티 안 나게 잘 넘겨왔는데 최근에 정말 가슴 저미도록 아름다운 효녀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다.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서 일찍부터 철이 들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딸. 대학생 때, 친구들은 소개팅이다 미팅이다 정신 없는데, 그 힘들다는 식당 불판 닦는 일을 보수가 많다는 이유로 마다않고 열심히 했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평일 내내 일하고도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 보태고 본인의 결혼 비용까지 충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딸을 시집보낸 후 책상에서 발견한 편지와 통장. 적지 않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던 통장과 자기에겐 부모님이 최고이며 앞으로는 즐기면서 사시라는 내용의 편지.

사연을 읽으면서 몇 번을 울 뻔했지만, 감정을 추스르며 겨우 마무리를 했다. 양희은 누님에게 그런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럴 땐 그냥 올라고, 그걸 왜 참았냐고 혼났다.

앞으로도 잘 참아 낼 자신이 없다.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의 연기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드라마를 보다가도 많이 우는 내가 우리네 진짜 이야기를 듣고 참아내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 다만 울게 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여성시대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절대 꾸며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삶의 이유이자 희망, ‘우리의 가족’ 이야기이니까.

##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라는 병》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한국의 가족들이 급변하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이미 베이비붐세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최근 1인 가족이 전체 가족의 30%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흔히 볼 수 없었던 가족 형태가 주위에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아이 없이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부부들이 신혼부부에서부터 중년부부까지 늘어나고, 황혼이혼과 함께 혼자 사는 노년세대뿐만 아니라, 자식들 눈치에 재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노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중년의 자식과 갱겨루족이라 불리는 늙은 자식과 살아가는 더 늙은 부모, 결혼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사는 이성 및 동성의 동거 형태 등도 더 이상

이상한 가족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이 일반화되면서 일일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단란한 가족의 환상은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상이 되었다.

《가족이라는 병》의 저자 시모주 아키코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 동거와 셰어하우스, 동성커플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속속 출현하는 일본의 세태를 직시하고, 그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모습들 속에서 가족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란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한다.

'단란한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사회적 상식이 모두에게 더 피로한 가족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의 시작이다. 가

족의 균형이 깨져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갈등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친구나 선후배들과의 갈등보다도 더 큰 상처를 마음에 지니게 된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거나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이 속한 가족의 단란함이 깨져 보일 거라는 걱정 때문에 실제 외부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지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 저자는 부모와 형제가 다투는 일 없이 사이좋고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하며 사는 가족, 경제적으로도 웬만큼 풍족하고,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등, 모든 가족의 이상향과 같은 이런 가족이 과연 정상적인 가족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저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여러 가지 불화를 겪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 오빠와의 결별 등 동네 이웃보다 못한 소원한 사이로 가족들과 만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세월은 흘러 저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를 이해하기도 전에 차례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저자는 알게 된다. '나는 그들을 이해했을까. 도대체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모든 가족이 죽고 나서야 그들이 궁금해지는 진실,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찾아 나선 저자는 자신만이 아닌 주위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의 일원들이 우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과정과 경험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인격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가족이라는 병'은 가족 모두가 각 각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순간 치유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가족도 타인이며, 자신과 결코 동일한 하나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찾게 되는 과정을 저자는 '가족이라는 병'을 통해 제안한다.

**시모주 아키코 저 | 살림**





이 많은 멤버십 카드가 바코드 하나에 쏙!



## 카드 결제와 멤버십 적립을 한장에 원카드 투플레이 IBK-Syrup카드

다양한 멤버십 카드를 원바코드에 담은 새로운 카드  
이제 IBK-Syrup카드 하나로 편리함을 누리세요



\* 발급대상: 개인(본인) • 발급구분: 신용, 체크 • 연회비: 신용(UnionPay 5천원, Master/건민 체크(UnionPay 2천원) 서비스 제공 조건 등 상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안센터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서정석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경일약)/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955호 (2015.04.16) CP043 게시기간 : 2016.04.15

• 이 안내장은 2015.04.16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5.05.12) 이후 5년 이상 연속 출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회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전발령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부터 매월 개별 고지 해드립니다. ④ 개별 고지 방법: 카드대금정기서,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하나-2개 이상 필수카드 소지시 정하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정보에 본인의 사용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사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장처(가주)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1332, IBK기업은행: ☎800-800-0109,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우를 받지 않습니다. 유리경영 위반사상이나 개인이 필요할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00, e-mail: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납입은 가계계정에 위입이 됩니다. • 연회 이자를 (최저 연 16.5%~최고 연 24.0%)은 정상 이자를 및 연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